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혁명사상
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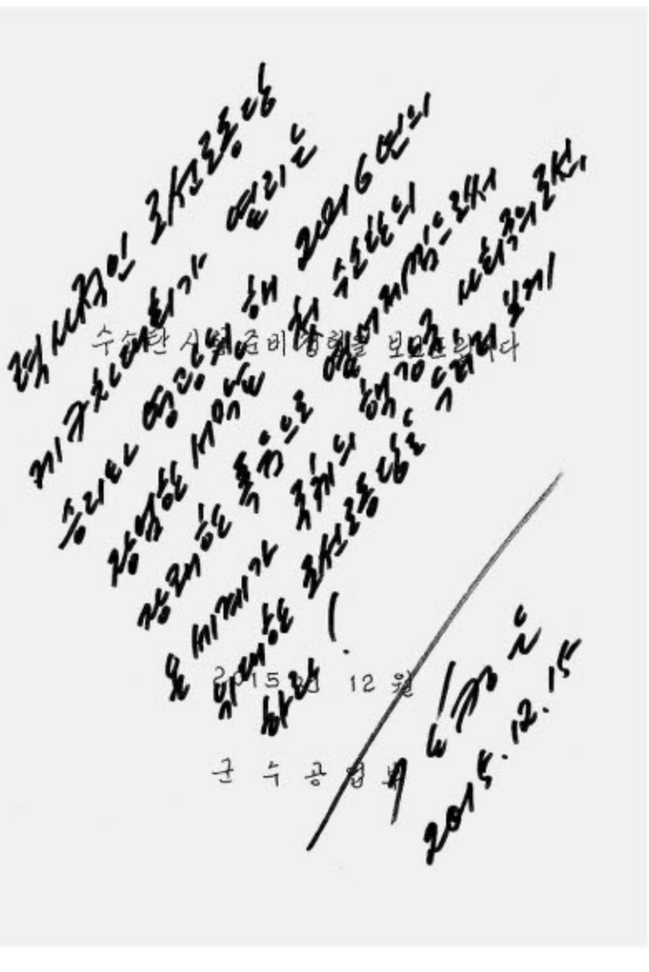
# 로동신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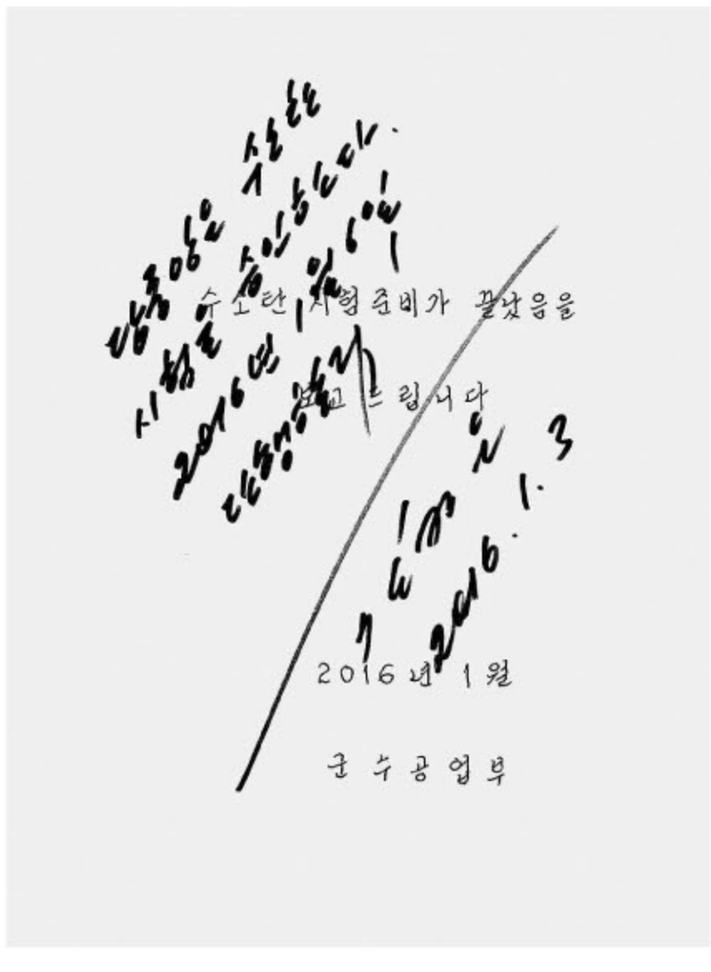
위대한 김정은동지
따라 최후의 승리를
향하여 앞으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7호 【루계 제25150호】 주체105(2016)년 1월 7일 (목요일)

#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 첫 수소탄시험을 진행할데 대한 력사적인 명령을 하달




조선로동당 제1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조선로동당을 대표하여 주체104(2015)년 12월 15일 주체조선의 첫 수소탄시험을 진행할데 대한 명령을 하달하신데 이어 주체105(2016)년 1월 3일 최종명령서에 수표하시였다.

조선로동당의 전략적결심에 따라 진행된 주체조선의 첫 수소탄시험과 관련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성명이 발표된다.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성명
# 주체조선의 첫 수소탄시험 완전성공

온 나라 천만군민이 조선로동당의 전투적호소를 피끓는 심장으로 받아안고 주체혁명위업의 최후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총돌격전에 과감히 떨쳐나 눈부신 기적과 위훈으로 날과 날을 이으며 거대한 전진을 이룩해나가고있는 격동적인 시기에 반만년민족사에 특기할 대사변이 일어나 천지를 진감하고있다.

**조선로동당의 전략적결심에 따라 주체105(2016)년 1월 6일 10시 주체조선의 첫 수소탄시험이 성공적으로 진행되였다.**

우리의 지혜, 우리의 기술, 우리의 힘에 100% 의거한 이번 시험을 통하여 우리는 새롭게 개발된 시험용수소탄의 기술적 제원들이 정확하다는것을 완전히 확증하였으며 소형화된 수소탄의 위력을 과학적으로 해명하였다.

안전하고 완벽하게 진행된 이번 시험용수소탄시험은 주위 생태환경에 그 어떤 부정적영향도 주지 않았다는것이 확인되였다.

이번 수소탄시험은 우리 핵무력발전의 보다 높은 단계이다.

력사에 특기할 수소탄시험이 가장 완벽하게 성공함으로써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수소탄까지 보유한 핵보유국의 전렬에 당당히 올라서게 되였으며 우리 인민은 최강의 핵억제력을 갖춘 존엄높은 민족의 기개를 떨치게 되였다.

**우리 공화국이 단행한 수소탄시험은 미국을 위수로 한 적대세력들의 날로 가증되는 핵위협과 공갈로부터 나라의 자주권과 민족의 생존권을 철저히 수호하며 조선반도의 평화와 지역의 안전을 믿음직하게 담보하기 위한 자위적조치이다.**

이 세상에 적대시라는 말이 생겨난이래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처럼 그토록 뿌리깊고 포악무도하며 집요한것은 전례를 찾아볼수 없다.

사상과 제도가 다르고 저들의 침략야욕에 굴종하지 않는다고 하여 천추에 용납 못할 전대미문의 정치적고립과 경제적 봉쇄, 군사적압박을 가해오다못해 핵참화까지 들씌우려고 발광하는 잔악한 날강도무리가 바로 미국이다.

미제침략군 핵항공모함타격집단과 핵전략비행대를 포함한 모든 핵타격수단들이 끊임없이 쓸어들고있는 조선반도와 그 주변은 세계최대의 열점지역, 핵전쟁의 발화점으로 되고있다.

미국은 적대세력들을 규합하여 형형색색의 대조선경제제재와 모략적인 《인권》소동에 매달리면서 우리의 강성국가건설과 인민생활향상을 가로막고 《제도붕괴》를 실현해보려고 피를 물고 덤벼들고있다.

방대한 각종 핵살인무기로 우리 공화국을 호시탐탐 노리고있는 침략의 원흉 미국과 맞서고있는 우리 공화국이 정의의 수소탄을 틀어쥔것은 주권국가의 합법적인 자위적권리이며 그 누구도 시비할수 없는 정정당당한 조치로 된다.

진정한 평화와 안전은 그 어떤 굴욕적인 청탁이나 타협적인 회담탁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

오늘의 엄혹한 현실은 자기 운명은 오직 자기 힘으로 지켜야 한다는 철의 진리를 다시금 명백히 실증해주고있다.

사납게 달려드는 승냥이무리앞에서 사냥총을 내려놓는것보다 더 어리석은짓은 없을것이다.

**이번에 우리 공화국이 쟁취한 수소탄시험의 눈부신 대성공은 민족의 천만년미래를 억척같이 담보하는 력사의 대장거, 민족사적사변으로 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미국의 흉악한 핵전쟁기도를 분쇄하고 조선반도의 평화와 지역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자기의 노력을 다하고있는 진정한 평화애호국가이다.

우리 공화국은 책임있는 핵보유국으로서 침략적인 적대세력이 우리의 자주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 이미 천명한대로 먼저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을것이며 어떤 경우에도 관련수단과 기술을 이전하는 일이 없을것이다.

미국의 극악무도한 대조선적대시정책이 근절되지 않는 한 우리의 핵개발중단이나 핵포기는 하늘이 무너져도 절대로 있을수 없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주체혁명위업의 천만년미래를 믿음직하게 담보하는 우리의 정의로운 핵억제력을 질량적으로 부단히 강화해나갈것이다.**

위대한 조선로동당의 병진로선을 높이 추켜들고 나아가는 주체조선은 무궁번영할것이다.

주체105(2016)년 1월 6일

평 양

백두산대국의 위용 만방에 더 높이 떨쳐갈 신념의 맹세 하늘땅을 진감한다. 본사기자 장성복 찍음

# 위대한 김일성민족, 김정일조선의 국력과 위용 하늘끝에 닿았다

## 온 누리가 진감한다, 5천년이 환호한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적대세력의 도전은 계속되고 정세는 의연히 긴장하지만 우리는 혁명의 붉은기를 높이 들고 자주, 선군, 사회주의의 한길을 따라 변함없이 나아갈것이며 조선반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수호하기 위하여 책임적인 노력을 다할것입니다.》

백두산대국의 장쾌한 뢰성이 누리를 진감시켰다.

삽시에 온 나라는 격정과 환희의 불도가니로 끓어번지기 시작하였다.

이 땅에 태를 묻은 사람들이라면 어찌 부둥켜안고, 얼싸안고 울고웃으며 오늘의 민족사적 대경사를 기뻐하지 않으랴.

얼마나 소중한 조국의 재부인가, 우리 당의 병진로선이 낳은 주체조선의 자랑스러운 수소탄!

그것은 하늘끝에 닿은 우리 국력의 높이이다. 그것은 수소탄까지 보유하고 핵보유국의 전렬에 올라선 우리 공화국에 대한 당당한 선언이며 최강의 핵억제력을 갖춘 우리 민족의 존엄과 기개에 대한 뚜렷한 과시이다.

민족사적인 대사변을 두고 기뻐하는것이 어찌 오늘의 격동적인 시대에 사는 천만군민이라고만 하랴.

두눈을 감고 들으시라.

대성산의 유정한 솔바람소리에 항일의 피바다만리, 혈전만리를 헤치며 조국의 독립과 부강번영을 위해 청춘도 생명도 바친 혁명선렬들이 오늘이 기뻐 터치는 목소리 실려있지 않는지. 조국해방전쟁참전렬사묘에 안치되였어도 오늘도 우리들에게 1950년대 조국수호정신을 넘겨주고있는 영웅전사들의 환희의 목소리 들려오지 않는지.

어찌 혁명렬사들과 영웅전사들만이겠는가.

오늘의 대경사를 우리의 장구한 민족사, 5천년도 환호하고 있다.

이끼푸른 옛 성벽도, 고색창연한 문루도 반침략투쟁에서 용맹떨치고 나라를 지키고 나라를 되찾는 길에 파란많은 한생을 바친 수수천만의 렬사들과 의사들, 지사들의 령혼을 비껴 담고 오늘의 력사적대장거를 찬탄하는듯싶다.

돌이켜보면 력사의 하늘가에 새겨진 교훈과 진리는 많았어도 그것을 쥐여짜면 단 한가지 나라의 주먹이 약하면 그 주먹이 인민의 눈물에 젖게 되고 나라의 주먹이 강하면 반대로 그 주먹에 침략자, 원쑤들이 눈물을 떨구게 된다는것이다.

우리 조국이 보유하게 된 수소탄, 그것은 주체조선의 힘이 비할데 없이 강하여지고 우리의 주먹이 그 누구도 막을수 없이 드세여졌다는것을 말하여준다. 지난 세기에만 하여도 강도적인 침략자에게 국권을 강탈당하고 혈강들의 흥정의 칼도마우에 올라 란도질당해야 했던것이 이 나라의 운명이였다.

그러던 우리 조국이 치욕의 지난날과 결별하고 자위의 강국으로 솟아올랐으며 오늘은 조국수호의 강력한 힘만이 아니라 지역과 세계의 평화를 담보하는 강력한 보검을 틀어쥐게 된 요인은 어디에 있는가.

1960년대 초엽, 당중앙위원회 제4기 제5차전원회의 전야의 사실이 오늘 우리의 가슴을 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벌써 여러번째나 같은 질문을 하시였다.

동무들, 생각해봤습니까.

자신께서 몸소 작성하신 경제국방병진로선에 대한 결정서 초안을 정치국 위원들에게 보이시고 의향을 물으시는 우리 수령님이시였다. 첨예한 세계정세를 예리하게 분석한데 기초하여 수령님께서 내놓으신 경제국방병진로선이기에 무조건 관철할 일념밑에 일군들은 해야 합니다라고 대답올렸다.

순간 수령님께서 책상을 팡 치시며 이게 뭔줄 아는가? 우리 인민이 허리띠를 다시 졸라매야 한단 말이요, 허리띠를! 하고 강조하시였다.

국방건설에 돌려야 할 지출때문에 인민들의 생활이 어려워지게 될것을 그토록 가슴아파하시는 어버이수령님이시였다.

장내에 천만근의 무게가 실리였다. 그때 앞줄에 앉아있던 한 항일투사가 천천히 일어나 수상님, 해야 합니다라고 말씀드리였다.

다른 동무들은 어떤가고 묻으시는 수령님!

《해야 합니다.》

수령님께서는 미더운 눈길로 생사운명을 같이하며 시련의 고비를 넘어가야 할 인민의 대변자인 전우들을 이윽토록 둘러보시며 교시하시였다.

고맙습니다. 동무들, 허리띠를 백번 졸라매면서라도 우리는 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자주권을 지킬수 있습니다라고 하시고는 손수건을 꺼내여 눈굽을 닦으신 우리 수령님이시였다.

당중앙위원회 제4기 제5차 전원회의에서는 《한손에는 총을, 다른 한손에는 낫과 마치를!》이라는 전투적구호가 제시되였다.

총대철학을 어버이수령님으로부터 넘겨받으신분은 위대한 장군님이시였다.

원쑤들의 경제봉쇄로 쓰러지는 인민을 생각하며 고난의 행군의 눈물겨운 길을 헤쳐가실때 1960년대의 그 일이 떠올라 비분강개한 심정으로 전선으로 떠나신 위대한 장군님.

총대우에 나라와 민족의 운명이 있다. 이런 불변의 신념과 의지를 지니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백두산총대바람을 세차게 일으키시며 선군장정의 길을 억세게 헤쳐나가시였다. 바로 그 길에서 우리의 혁명강군은 지구상 그 어디에 있는 침략의 무리도 처부실수 있는 무적의 정예대오로 자라났고 우리 조국은 2006년에는 첫 지하핵시험에서, 2009년에는 또 한차례의 지하핵시험에서 성공하여 핵보유의 민족사적대업을 이룩할수 있었다.

반만년의 우리 민족사에서 당중앙위원회 2013년 3월전원회의는 특별히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경제를 발전시키고 인민생활을 높이기 위한 투쟁은 핵무력에 의해 담보되여야 성과적으로 진행될수 있으며 우리의 핵무력은 믿음직한 전쟁억제력으로, 민족의 자주권을 수호하기 위한 담보로 된다고 하시며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의 병진로선을 밝혀주신 경애하는 원수님.

주체조선의 첫 수소탄시험의 뢰성이 천하를 진감시킨 오늘날 우리 조국의 존엄과 국력은 하늘에 닿았다. 세계는 정의와 진리의 위대한 수호자, 한 민족의 수호자이실뿐 아니라 인류의 평화를 지켜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천출위인상을 똑똑히 목격하고있다.

이 땅에 굽이친 5천년사는 위대한 영웅, 절세의 애국자, 걸출한 령도자를 환호하고 있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리상을 빛나게 꽃피우시여 민족의 천만년 미래를 억척같이 담보하신 김정은장군에 대한 찬가를 소리높이 웨치고있다.

본사기자 박 일 민

### 천만군민의 합창
## 《나가자 조선아 병진 앞으로》

온 나라 군대와 인민이 환희와 격정으로 설레이고있다.

전세계가 조선을 바라보며 놀라고있다.

《주체조선의 첫 수소탄시험 완전성공》!

민족의 천만년미래를 억척같이 담보하는 충격적인 소식에 접한 온 나라 천만군민의 심장마다에서는 끝없는 힘이 용솟음치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당이 제시한 병진로선의 정당성을 굳게 믿고 승리의 신심드높이 그 관철을 위한 투쟁에 한결같이 떨쳐나서야 하겠습니다.》

위대한 김정은시대 백두산대국의 진군가와도 같이 우렁차게 울리고있는 노래 《나가자 조선아 병진 앞으로》는 지난 주체102(2013)년 4월에 창작되였다.

강성국가건설과 조국통일의 혁명적대사변을 앞당기는데서 중요한 리정표를 마련한 력사적인 당중앙위원회 2013년 3월전원회의정신을 높이 받들고 그해 4월에 창작된 이 노래에는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의 기치를 높이 들고 자주의 길, 선군의 길, 사회주의 길로 힘차게 나아가는 내 조국의 기상이 력력히 굽이치고있다.

노래에도 있는바와 같이 력사적인 당중앙위원회 2013년 3월전원회의와 더불어 우리의 선군혁명위업은 새로운 력사적전환기를 맞이하였다.

온갖 원쑤들의 악랄한 도전과 책동을 과감히 짓부시며 선군의 위력이 백방으로 강화되였고 조국땅우에 천하제일강국, 인민의 락원을 일떠세우려는 천만군민의 애국열, 투쟁열은 눈부신 기적과 혁신을 안아왔다. 하늘에서는 우리가 만든 비행기가 날고 땅속에서는 우리가 만든 지하전동차가 달리는 자랑찬 현실속에서 오늘 또다시 선군의 위대한 힘이 지심을 뒤흔들었다.

우리의 지혜, 우리의 기술, 우리의 힘으로 반만년민족사에 특기할 대사변을 이룩한 주체조선의 첫 수소탄시험의 진정한 폭음을 우리는 노래 《나가자 조선아 병진 앞으로》의 구절들에서 새기고있다.

…

나가자 조선아 당중앙 부름따라
경제와 핵무력 병진 병진 앞으로

…

당의 사상관철전, 당정책옹위전의 불길속에서 태여난 이 노래야말로 우리의 고귀한 피와 땀이 슴배인 승리의 노래이며 시대를 격조높이 구가하고 사람들의 가슴을 후련히 하여주는 위력한 노래폭탄인것이다.

우리 당의 병진로선은 급변하는 정세에 대처하기 위한 일시적인 대응책이 아니라 조선혁명의 최고리익으로부터 항구적으로 틀어쥐고나가야 할 전략적로선이며 사회주의강성국가를 일떠세우기 위한 가장 정당한 로선이다.

정의와 진보를 위한 인민의 위업은 인류의 량심과 평화번영의 리념과 더불어 영원한 생명력을 지니게 되는 법이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력사적인 신년사를 피끓는 심장마다에 받아안고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를 향한 총진군의 첫시작부터 통장훈을 부르며 큰 결음을 내짚은 우리 천만군민의 전투적사기는 참으로 높다.

조선의 기상이 하늘에 닿고 민족의 존엄이 세계를 뒤흔드는 경이적인 성과들과 더불어 우리 인민의 행복은 날마다 커가고있으며 주체의 사회주의위업의 최후승리가 다가오고 있다.

우리 당의 로선과 정책, 주체혁명위업을 운명으로 간직한 군대와 인민의 힘은 날을 따라 백배해지고있다. 백두산천출위인의 현명한 령도따라 불멸의 태양기의 축복속에 진격해가는 백두산대국의 앞길에는 언제나 위대한 승리만이 빛날것이다.

우 정 혁

## 수소탄과 그 위력

수소탄은 핵융합에네르기를 리용하는 핵무기의 한 형태이다.

일반적으로 무거운 핵이 분렬되거나 가벼운 핵이 융합될 때 많은 에네르기가 방출된다. 무거운 핵이 분렬될 때 나오는 에네르기를 리용한것이 원자탄이며 가벼운 핵이 융합될 때 나오는 에네르기를 리용한것이 수소탄이다.

가벼운 핵이 융합될 때에는 무거운 핵이 분렬될 때보다 더 많은 에네르기를 방출한다.

따라서 수소탄은 원자탄에 비해서 훨씬 더 위력하다.

수소탄은 수소의 동위원소들인 중수소와 초중수소의 핵융합반응에 의하여 헬리움원자핵이 형성될 때 생기는 에네르기를 리용한 핵무기이다. 중수소와 초중수소의 원자핵은 수천만℃의 높은 온도와 $10^{13}$Pa이상의 압력에 의해서만 융합반응을 일으킨다. 그러므로 핵융합반응을 열핵반응이라고 하며 수소탄을 열핵무기라고도 한다.

중수소와 초중수소의 열핵반응에 필요한 높은 온도와 압력은 원자탄의 폭발에 의해서 얻을수 있다.

그러므로 수소탄은 원자탄을 기폭제로 쓰고 그 둘레에 중수소와 초중수소를 장입한다.

원자탄이 터질 때 $10^{-7}$s사이에 수천만℃의 온도와 $10^{13}$Pa이상의 압력이 조성된다. 이때 가벼운 원소들인 중수소와 초중수소가 융합되면서 핵반응이 일어나며 매우 큰 에네르기를 내보내게 된다.

우라니움 1kg이 완전히 분렬될 때 나오는 에네르기에 비해 수소 1kg이 융합될 때 나오는 에네르기가 훨씬 크므로 일반적으로 수소탄은 원자탄에 비해서 그 위력이 10배이상에 달한다고 한다.

핵융합에네르기를 리용하는 수소탄계렬에는 중성자탄, 방사능오염감소탄 등 특수목적들에 리용되는 핵무기들이 있다.

수소탄개발에는 초정밀기술과 첨단제료기술을 비롯하여 첨단과학기술이 안받침되여야 한다.

본사기자

## 수필 ‖ 내 조국의 높이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오늘의 국제정세는 우리 공화국이 지난날과 마찬가지로 선군의 기치를 높이 들고 자주의 길로 나아갈것을 요구하고있습니다.》

첫 수소탄시험 완전성공!

위대한 당의 전략적결심에 따라 주체조선의 첫 수소탄시험이 성공적으로 진행되였다는 소식은 이 땅을 순식간에 불의 도가니로 만들었다.

초소와 일터, 거리와 마을, 집집마다에서 터져오르는 격정의 함성이 이 땅을 진동하며 하늘가득 메아리치는 전대미문의 이 극적인 사변은 위대한 우리 조국을 세상에 대고 마음껏, 끝이 없이 구가하고싶은 충동으로 이 가슴 펄펄 끓게 한다.

우리 나라는 강대국에 대한 개념을 새롭게 정립하고 그것을 빛나게 실현한 인류력사의 첫 나라이다.

세상사람들은 지금껏 강대국이란 어떤 나라여야 하는가에 대한 정확한 인식도 표상도 가지지 못하였었다. 그저 령토의 크기나 인구수, 군사력과 경제력을 강대국의 징표로 인식하고있는데 머물러 있었다.

그러나 진정한 강대국, 천하제일강국이란 과연 어떤 나라인가를 말이나 글이 아니라 현실로 보여준 나라가 지구상에 우뚝 솟아올랐으니 그것이 바로 주체의 우리 조국, 선군의 우리 공화국이다.

력사를 돌이켜보고 세계를 둘러보면 피의 교훈, 승리의 진리를 되새겨준다.

큰 나라이건 작은 나라이건 자기를 지킬수 있는 힘이 없으면 노예가 되고 자강력이 있으면 승리자가 된다!

우리 인민은 력사의 이 진리를 체험을 통해 피절게 새긴 인민이다.

망국노의 불운도 체험했고 조국해방, 조국수호의 불바다도 헤쳤으며 총포성없는 반미대결전도 치르면서 우리 인민은 선군의 총대야말로 조국의 운명과 존엄, 부강번영과 찬란한 미래를 담보하는 필승의 보검이라는것을 뼈에 새겼다.

무엇이나 바란다고 하여 저절로 이루어지는것이란 없다.

총대가 약해 력사의 비극을 체험한 우리 인민이 선군의 위력으로 력사의 기적을 창조한 이 영웅적조국건설신화는 무엇을 보여주고있는가.

위대한 수령, 위대한 령장이 국력을 결정하며 백승을 결정한다.

백두에서 개척된 조선혁명력사는 위대한 수령님들과 경애하는 원수님의 불멸의 선군혁명력사이다.

위대한 인민을 키워 혁명의 천하지대본인 일심단결의 대업을 빛나게 실현하시고 무적의 군력을 키워 조국수호와 부강번영의 만년토대를 마련하신 백두산절세위인들의 불멸의 업적의 높이는 끝내 조국의 진정한 높이이다.

하기에 내 조국의 모습을 백두산절세위인들의 위대한 영상으로 새겨안는것이 바로 우리 군대와 인민의 숭고한 조국관으로 된것이 아닌가.

그렇다.

강대국의 진정한 징표는 수령의 위대성, 일심단결의 위력, 막강한 군력이다.

위대한 수령의 두리에 천겹만겹의 성새를 이룬 일심단결을 최강의 무기로 틀어쥔 우리 조국이 국방력의 최정수인 수소탄까지 틀어쥐였으니 선군조선은 하늘높이 치솟아 세상을 굽어보게 되였다는 이름 못할 흥분에 이 가슴 진정할수 없다.

당 제7차대회가 열리는 뜻깊은 올해의 첫 진군길에서 울려퍼진 주체조선의 수소탄 폭음이 최후승리의 축포성으로 우리 군대와 인민의 가슴을 팡팡 두드리고있는것은 참으로 의미심장하다.

세계여, 선군조선을 보려거든 눈길을 들어 하늘을 보라.

세상에 없는 최강의 무기를 다 가지고 천하를 굽어보며 최후승리를 향해 폭풍쳐 내달리는 선군의 내 조국이야말로 인류가 바라면서도 오르지 못할 최고경지에 우뚝 올라선 유일무이한 초강대국이라고 우리는 당당히 말하고싶다.

이것이 바로 반만년민족사에 처음 보는 선군조선의 대지진이고 크나큰 궁지와 환희가 분출하는 태양민족의 대화산이 아니겠는가.

본사기자 김 영 철

천하제일의 백두산혁명강군과 맞설자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없다. 본사기자 리충성 찍음

## ‖ 특별중대보도가 일으킨 대파문 — 선군정치 만세 ‖

### 인민이 흘린 뜨거운 눈물

전파를 타고 방송원의 목소리가 울려퍼지였다.

특별중대보도를 기다리던 교육위원회 일군들은 자기들의 귀를 의심했다. 다음에는 너무도 놀라 가슴을 푹 부여잡았으며 마침내는 뜨거운 눈물을 쏟고야말았다.

특별중대보도가 끝나고 우렁찬 박수소리가 멎었을때 위원회의 한 일군이 격정의 목소리를 터뜨렸다.

《어버이장군님, 들으셨습니까. 우리 나라가 수소탄까지 보유한 핵강국이 되였습니다.》

여기저기서 흐느낌소리가 터져나왔다. 아니 그들만이 아닌 온 나라 인민이 뜨거운 눈물을 흘리였다.

이 땅에 행복이 커갈수록 어버이장군님을 잊지 못하는 우리 인민이다.

교육위원회 초급당비서 김정민동무는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의 핵억제력, 이것이야말로 우리 장군님의 고생과 맞바꾼 행복중의 행복이 아니겠습니까. 장군님께서 헤쳐가신 고난도 많았고 시련도 컸던 선군길에서 꽃펴난 대경사로구나 하고 생각하니…》

고난의 시기 우리 장군님께서 어쩌하여 선군의 기치를 더 높이 드시였는지 그때는 다 몰랐다. 어찌하여 우리 장군님께서 제국주의련합세력의 제재와 압박이 날로 가중되는 속에서 그 모든 고난과 시련을 한몸에 걸머지시고 선군의 길을 앞장에서 헤치시는지, 허리띠를 졸라매고서라도 사탕알보다 총알을 더 많이 만들어야 한다고 그토록 절절히 호소하셨는지 그때는 미처 몰랐다.

천만뜻밖에도 우리 장군님을 잃고서야 너무도 때늦게 가슴을 친 생각, 귀중한 이 나라와 사랑하는 인민의 존엄을 지켜, 민족의 후손만대의 행복을 위해 우리 장군님께서 그리도 멀고 험난한 선군길을 가시였다는 생각에 더욱더 가슴치며 피눈물을 흘린 이 나라의 아들딸들이 아니던가.

그들은 심장의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아버지장군님에 대한 끝없는 고마움의 노래를.

본사기자 림 현 숙

### 수도의 하늘가에 높이 울린 애국가

온 나라를 환희와 격동의 도가니로 화하게 한 특별중대보도는 평양역에서 렬차를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의 가슴에도 불덩이리를 안겨주었다.

평양역앞에서는 온종일 사람들의 웃음소리, 노래소리가 그칠줄 몰랐다.

혜산으로 가는 렬차를 타려고 나왔다는 한 손님은 눈물이 글썽해가지고 이 경사로운 소식을 수도 평양에서 들은것도 복이라고, 이제 집에 가면 평양에서 보고 들은 모든것을 이야기해주겠다고 하면서 이 기쁜 날 우리 함께 선군조선의 특대사변을 축하하자고 하며 곁사람들을 막 부둥켜안았다.

두살잡이 귀여운 딸애를 데리고 지방에 있는 본가집에 가려댔다는 젊은 녀성은 어머니당이 우리들에게 이처럼 큰 복을 주었는데 어떻게 편안히 나들이길음을 하겠는가고 하면서 그길로 공장으로 발걸음을 돌리였다.

첫 수소탄시험에서 완전성공!

이 소식이 그토록 온 나라 인민을 격정에 울고웃게 한것은 무엇때문인가.

바로 그로 해서 우리 조국의 국력을 만방에 과시하고 우리 인민의 존엄이 하늘에 닿았기 때문이 아니랴.

누군가가 조용조용 선창을 뗐다.

아침은 빛나라 이 강산
은금에 자원도 가득한
…

애국가의 선률은 곧 수많은 사람들의 합창으로 이어졌다. 길을 가던 사람들도 목소리를 합쳤다.

노래는 끝났으나 사람들은 헤여질줄 몰랐다.

주체105(2016)년 1월 6일, 이날과 더불어 김일성, 김정일민족의 존엄이 하늘에 닿았거늘 어찌 애국가의 노래소리가 하늘가에 울려퍼지지 않으랴.

본사기자 허 명 숙

### 두일령의 작은 산골집에서

반만년민족사에 특기할 대사변을 전하는 특별중대보도는 수십명의 부모없는 아이들이 한식솔의 정을 나누며 사는 두일령의 작은 산골집에도 무한한 환호성을 터쳐올렸다.

텔레비죤수상기앞에 앉아 이제는 수소탄까지 가졌으니 미국놈들이 완전히 꼼짝 못하게 됐다고 무릎을 치는 아버지 최명화동무의 얼굴에도, 수소탄이 무엇인가고 물어보면 철부지들의 초롱초롱한 눈빛에도 우리 나라가 세상에서 제일이라는 긍지와 자부심이 차고넘쳤다.

기쁨에 넘친 남편이며 아이들을 바라보는 류옥희녀성의 눈가에 뜨거운것이 고여올랐다.

강대한 조국에 대한 자부심이 왜서인지 웃음이 아니라 눈물이 되여 심장에서 솟구쳐오른것이다.

전쟁의 불구름을 막고 이 땅의 영원한 행복을 지켜주는 선군의 총대가 없었더라면 미국놈의 파렴에 피흘리며 쓰러졌을 아이들이 아니던가.

때로는 먹을것, 입을것이 부족했어도 바로 평화로운 조국의 품이 있어 그처럼 준엄한 고난의 시절부터 오늘에 이르는 근 20년세월 마음편히 아이들을 키워올수 있었던것이다. 모두들 기뻐하는데 어머니는 왜 우는가고 묻는 은일이에게 최명화동무가 말해주었다.

《어머니는 우는게 아니다. 너희들의 미래가 더 밝게 열린게 너무 기뻐 웃고있는거다.》

그렇다. 평화는 어머니들의 가장 큰 행복이다. 그 평화와 함께 자식들의 밝은 앞날이 담보되는것이다.

민족의 천만년미래를 담보하는 뢰성이 터져오른 력사의 1월 6일,

하기에 이날 이 나라 어머니들의 눈물에 젖은 모습이 더욱 더 아름답게 우리의 마음속에 안겨온것이다.

본사기자 승 철 진

### 그날은 일요일이였다

특별중대보도에 접한 사람들이 만세를 부르며 얼싸안고 돌아갔다.

사람들속에 묻혀있던 력포구역 류현리 김경숙로인은 곁에서 덩실덩실 춤을 추는 농장원처녀를 멈춰세웠다.

《방송에서 분명 1월 3일이라고 했지?》

《그래요. 할머니,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주체조선의 첫 수소탄시험을 진행할데 대한 명령을 하달하신데 이어 1월 3일 최종명령서에 수표하셨다고 했습니다.》

또랑또랑 울리는 농장원처녀의 말에 귀를 강구던 김경숙로인은 혼자 소리처럼 뇌이였다.

《그날은 일요일이였지. 일요일…》

일요일이란 말을 거듭 곱씹는 김경숙로인의 눈가에서 불현듯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다. 사람들이 하나둘 김경숙로인의 곁으로 다가왔다.

어이 모르랴, 지난 조국해방전쟁의 참화를 직접 목격했던 김경숙로인의 가슴속에서 66년전 6월 25일 일요일의 그 가증스러운 폭음이 울리고있음을.

미제가 들씌웠던 전쟁이라는 재앙이 아직도 돌덩이처럼 박혀있어 이 나라 사람들의 마음속에 일요일은 단순한 휴식일의 의미로만 새겨질수 없었다.

일요일로부터 시작되였던 전쟁의 참상이 이제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으리라,

위대한 선군령장께서 최종명령서에 수표해주신 1월 3일 그 일요일과 더불어 최강의 핵억제력을 갖춘 백두산대국의 뢰성이 하늘땅을 진감하였기에.

2016년 1월 6일, 이날은 선군조선이 원쑤들의 멸망을 장엄히 선언한 날이였기에 온 나라 방방곡곡의 마을과 거리들은 승리의 희열에 넘친 사람들이 펼친 춤바다, 웃음바다로 그토록 떠들썩했다. 온 나라가 명절처럼.

본사기자 조 경 철

# 민족의 천만년미래를 억척같이 담보하는 력사의 대장거

## 첫 수소탄시험 완전성공소식에 접하고 온 나라가 들끓는다

## 우리 당의 선군정치, 병진로선의 위대한 승리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김정일대원수님께서 한평생 선군혁명령도의 길에 계시면서 품들여 마련해주신 선군의 총대를 더욱 억세게 틀어쥐고 조국의 안전과 혁명의 전취물을 수호하며 이 땅우에 통일된 강성국가를 일떠세우려는것은 우리 당의 확고한 결심이며 의지입니다.》**

온 나라 천만군민이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를 승리자의 대회, 영광의 대회로 빛내이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고있는 시기에 우리는 첫 수소탄시험을 성공적으로 단행하였다.

우리의 수소탄시험은 그 어떤 천지풍파가 닥쳐와도 조선은 결심하면 한다는것을 다시한번 만천하에 과시한 특대사변이며 우리 군대와 인민에게 필승의 신심과 락관을 천백배로 북돋아준 민족사적쾌거이다.

우리 당은 3년전 3월에 진행된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의 병진로선을 제시하였다.

우리 당이 제시한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을 병진시킬데 대한 전략적로선은 조성된 정세와 우리 혁명발전의 합법칙적요구를 반영한 가장 정당한 로선이다.

핵무기를 휘두르며 우리 공화국을 압살하려는 미국의 야망이 조금도 변하지 않고 날이 갈수록 더욱 악랄해져 최대의 극한점에 이른 오늘의 현실은 우리 당이 제시한 병진로선의 정당성을 더욱 뚜렷이 확증해주고있다.

지난해 1월 미국대통령 오바마가 직접 나서서 우리 공화국을 하루라도 빨리 붕괴시켜야 한다고 공공연히 떠벌인것은 우리 나라를 어떻게 하나 집어삼키려는 미국의 정책을 공공연히 선포한것이나 다름없다. 지난해를 전쟁의 해로 정한 미국의 핵전쟁도발책동은 8월에 벌려놓은 《을지 프리덤 가디언》합동군사연습을 계기로 력사상 최절정을 이루었다.

지난해 미제의 전쟁도발기도가 여지없이 파탄된것은 전적으로 당의 두리에 굳게 뭉친 우리 군대와 인민의 일심단결의 위력과 강력한 전쟁억제력, 견결한 평화수호의지가 안아온 필연적 산물이다.

사상 최악을 기록한 지난해의 조선반도정세는 미국이야말로 침략의 괴수, 도발과 핵위협의 주범이며 평화파괴의 원흉임을 날날이 보여주었다.

이번 수소탄시험을 통하여 우리는 공화국을 압살하려는 미국에 무자비한 강타를 안기였으며 하늘에 닿은 백두산대국의 존엄과 기상을 세계앞에 다시금 힘있게 과시하였다.

조국청사에 빛나게 아로새겨질 첫 수소탄시험에서의 대성공은 조선로동당의 병진로선이 안아온 빛나는 승리이며 자주로 존엄높고 선군으로 위력떨치는 우리 조국의 국력을 다시한번 과시한 력사적사변으로 된다.

전체 인민군장병들과 인민들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진두에 계시기에 천만대적이 달려들어도 반드시 이긴다는 절대불변의 신념을 가슴깊이 간직하고 혁명의 수뇌부를 정치사상적으로, 목숨으로 견결히 옹호보위하여야 한다.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당에 대한 불타는 충정과 비상한 애국열의를 안고 강성국가건설의 최전성기를 열어나가기 위한 보람찬 투쟁에 한사람같이 떨쳐나 세기를 주름잡으며 최후승리를 향하여 내달리는 선군조선의 기상과 본때를 힘있게 과시하여야 한다.

위대한 당의 두리에 굳게 뭉쳐 혁명의 최후승리를 향하여 용기백배, 신심드높이 나아가는 우리의 앞길에는 승리와 영광만이 있을것이다.

당중앙위원회 비서 오 수 용

## 백두의 연길폭탄정신이 오늘의 대사변을 낳았다

반만년민족사에 특기할 또 하나의 대사변이다.

백두산대국의 승리는 확정적이고 조선로동당의 병진로선을 높이 추켜들고 나아가는 주체조선은 무궁번영할것이라는 신념이 더욱더 백배해진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자위적국방력은 선군조선의 존엄이고 자주권이며 승리의 담보이다.》**

주체조선의 첫 수소탄시험 완전성공에 관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성명에 접하니 속이 후련한 감정을 억제할수 없다.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고 항일무장투쟁을 벌리던 그때에 우리 투사들이 보천보의 불길로 세계를 놀래운 그 력사적사변을 다시금 대하는것만 같다. 그때 우리가 그 어떤 다른 힘이 있어 보천보의 뢰성을 낳았고 무엇이 많아서 조국해방이라는 력사적위업으로 세계를 놀래운것이 아니다.

바로 연길폭탄정신이 있었기때문이다. 이 정신이 있었기에 우리들은 자체로 화약도 만들어내고 기관총까지도 척척 재생하면서 무기를 마련하여 일제를 족쳐댔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언제인가 조선인민혁명군 대원들이 철사를 갈아 격침을 만들었을 때 격침 한개란 사실 보잘것없는것이다, 그것을 수리하는 시간이면 새 보총 10자루도 능히 로획해올수 있다, 하지만 그 격침 한개를 수리했을 때에 얻게 되는 교훈은 수소폭탄 한개의 힘보다 더 큰 힘을 산생시키고 확산시킨다고 뜨겁게 회고하시였다.

바로 이런 자력갱생의 혁명정신, 연길폭탄정신이 있었기에 우리는 백두의 사나운 눈보라도 웃으며 헤쳤고 천만의 대적앞에서도 굴함없이 모진 난관을 헤쳐왔던것이다.

그 연길폭탄정신이 오늘은 자강력제일주의를 과시하는 수소탄시험 완전성공을 낳았다.

백두의 연길폭탄정신으로 수소탄시험의 대성공을 안아왔으니 일본제국주의자들의 면전을 후려치던 그때처럼 제국주의의 우두머리라고 하는 미제의 면전을 다시금 가슴후련히 쳐갈기는 그런 심정을 체험하는것만 같다.

대를 이어 수령복, 장군복을 누리는 우리 인민이 오늘 또 한분의 걸출한 위인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높이 모신것은 더없는 행복이고 영광이다.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오늘의 격동적인 현실을 보시였더라면 얼마나 기뻐하시랴 하는 생각에 눈굽은 절로 젖어든다.

백두의 천출명장을 높이 모시고 투쟁해나갈 때 언제나 백전백승할수 있다는것은 어버이수령님 따라, 위대한 장군님 따라 선군혁명천만리길을 헤쳐오던 나날에 우리가 심장깊이 새긴 철리이다.

우리 항일혁명투사들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계시여 조선혁명은 언제나 백전백승하며 최후의 승리는 반드시 우리의것이라는 확신, 태양의 존함으로 불리우는 주체조선의 전도는 끝없이 휘황찬란하다는 신념을 더욱 굳게 간직하게 되였다.

세월은 흐르고 머리에 흰서리가 내렸지만 나는 위대한 수령님을 받들어모시고 싸우던 항일의 그 시절처럼, 위대한 장군님의 슬하에서 혁명의 심오한 진리를 더 깊이 새겨안던 그때처럼 새 세대들을 백두의 연길폭탄정신으로 튼튼히 무장시키는데서 혁명의 1세로서의 본분을 다해나가겠다.

항일혁명투사 황 순 희

## 자강력에 토대하여 새로운 비약을

경애하는 원수님의 력사적인 신년사를 받아안은데 이어 우리 조국이 수소탄시험에 완전성공했다는 충격적인 특별중대보도에 접하고보니 참으로 격동적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는 자기의것에 대한 믿음과 애착, 자기의것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강성국가건설대업과 인민의 아름다운 꿈과 리상을 반드시 우리의 힘, 우리의 기술, 우리의 자원으로 이룩하여야 합니다.》**

최고의 경지에 오른 우리의 국력을 만방에 시위한 이 사변적인 소식이야말로 민족의 긍지를 소리높이 전하는 특기할 대경사이고 조미대결전에서의 력사적인 패승이 아닐수 없다.

정말 가슴후련하다. 만리창공에 수소탄시험의 완전성공이라는 통쾌한 소식이 전해졌으니 조국수호의 강력한 보검을 틀어쥔 내 나라의 위용은 그 얼마나 높은 경지에 올라선것인가.

수소탄시험의 완전성공은 김일성, 김정일조선의 존엄과 위용을 온 지구와 우주공간에 힘있게 과시한 선군조선의 일대 경사이며 경애하는 원수님을 높이 모신 내 조국의 휘황한 미래를 축복하는 위력한 축포성이다.

경이적인 소식이 전해진 지금 온 나라에는 기쁨의 파도가 일렁이고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은 무서운 공포에 전률할것이다.

돌이켜보면 자주, 자립, 자위의 마치소리를 높이 울리였기에 우리 조국은 혁명발전의 매 시기, 매 단계마다 사회주의조국을 영예롭게 수호하고 경제강국건설을 힘있게 다그쳐올수 있었다.

수소탄시험의 성공은 과학기술에 기초한 우리의 자강력이야말로 눈부신 비약창조의 원동력이라는 것을 다시금 깊이 새겨주고있다.

우리 대안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은 자강력제일주의에 기초한 눈부신 발전설비생산선과로 반공화국대결책동에 미쳐날뛰는 원쑤들에게 준엄한 철추를 안기겠다. 이것이 선군조선의 무쇠마치소리를 우렁차게 울려가려는 우리의 결의이고 의지이다.

온 세계는 보게 될것이다. 위대한 선군사상에 기초하고 강위력한 핵억제력을 보유한 우리 조국이 어떻게 강성국가의 령마루에 보란듯이 올라서는가를.

위대한 선군령장이신 경애하는 원수님을 최고수위에 높이 모신 백두산혁명강군과 수소탄시험에서 완전성공한 우리의 국력, 천만군민의 일심단결이 있기에 우리의 승리는 확정적이다.

우리는 거대한 민족사적사변이 일어난 오늘의 격동적인 시기에 새 기적창조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펴올려 당 제7차대회를 조국청사에 빛날 승리와 영광의 대회로 뜻깊게 맞이할것이다.

대안중기계련합기업소
지배인 양 승 호

## 주체과학의 위력 더 높이 떨치리

첫 수소탄시험의 완전성공소식은 지금 우리 제작소의 전체 과학자, 기술자들과 일군들의 심장을 무한히 격동시키고있다.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반만년 민족사에 특기할 이 소식을 들으시면 얼마나 기뻐하시였겠는가 하는 생각에 우리모두의 눈굽이 절로 뜨거워졌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강성국가 건설념원을 총직하게 받드시여 우리 조국을 수소탄까지 보유한 핵보유국으로, 최강의 핵억제력을 갖춘 존엄높은 강국으로 세계에 높이 내세워주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 제작소의 전체 일군들과 과학자, 기술자들은 최대의 영광과 다함없는 감사의 인사를 삼가 드리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과학기술을 발전시켜야 국력을 강화할수 있고 나라와 민족의 륭성번영을 이룩할수 있습니다.》**

우리의 첫 수소탄시험이 가장 완벽하게 성공한것은 우리 당의 선군정치의 위대한 승리, 우리 당의 과학기술중시사상의 위대한 승리이며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세계를 디디고 솟구쳐오르는 주체과학기술의 위력을 힘있게 과시한 력사적인 사변이다.

우리의 과학자, 기술자들은 이번에 100% 우리의 지혜, 우리의 기술, 우리의 힘에 의거하여 시험용수소탄을 새롭게 개발하고 그 기술적제원과 소형화된 수소탄의 위력을 과학적으로 해명함으로써 우리 조국은 마음만 먹으면 이 세상 그 무엇이든지 다 만들어낼수 있다는것을 다시한번 온 세상에 힘있게 보여주었다. 또한 첨단과학기술의 종합체라고도 할수 있는 수소탄제작에서 단번에 대성공을 이룩함으로써 우리의 과학기술이 세계첨단과학기술의 령마루에 당당히 올라섰다는것을 다시금 뚜렷이 과시하였다.

이런 과학자, 기술자들이 선군혁명위업을 억척같이 떠받들고있기에 우리 조국이 강하고 우리의 사회주의가 굳건한것이다.

당에 대한 불타는 충정과 애국적헌신성으로 선군조선의 또 하나의 대경사를 안아오는데 적극 이바지한 과학자, 기술자들에게 이 세상 제일 화려한 꽃다발을 안겨주고 축하의 인사를 하고싶다.

우리 제작소의 모든 과학자, 기술자들은 우리 나라의 첫 수소탄시험에 완전성공한 과학자, 기술자들의 투쟁정신, 투쟁기풍을 따라배워 위대한 김정은시대에 살며 투쟁하는 주체조선의 과학자, 기술자답게 나라의 과학기술을 더 높은 수준으로 발전시키며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을 과학기술적으로 믿음직하게 담보하기 위한 투쟁을 더욱 과감히 벌려나갈 불타는 결의에 넘쳐있다.

국가과학원 111호제작소
소장 류 성 은

## 또다시 영웅조선의 본때를!

주체조선의 첫 수소탄시험 완전성공,

이 격동적인 소식은 우리 전쟁로병들을 끝없는 환희와 흥분에 휩싸이게 한다. 얼마나 가슴후련한 력사적장거인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불멸의 래양기를 높이 휘날리며 나아가는 우리의 앞길에는 오직 승리와 영광만이 있을것입니다.》**

김일성, 김정일조선의 막강한 국력을 만천하에 과시하며 지구를 세차게 울린 우리의 수소탄 뢰성,

승리한 교지마다에, 전승의 열병식광장에 메아리치던 그날의 우렁찬 만세소리를 력사의 이 언덕에서 다시금 커다란 격정속에 새겨본다.

이 땅에서 전쟁의 포화가 멎은지도 60여년의 세월이 흘렀다.

지금도 지나온 인생의 갈피를 추억속에 더듬어보느라면 보총과 원자탄의 싸움이라고도 말할수 있는 가렬처절한 조국해방전쟁의 나날들이 삼삼히 어려온다.

공화국남반부의 거의 모든 령토를 해방하며 침략자 미제에게 섬멸적타격을 안길 때 무기와 탄약이 부족하여 적들을 후련히 족치지 못하였던 그 아픔이 오늘도 우리 전쟁로병들의 가슴마다에 응어리져있다.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신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가 있었기에 우리 군대와 인민은 세계《최강》을 자랑하던 미제의 거만한 코대를 꺾어놓고 전승의 축포를 터칠수 있었다.

이 땅의 평화는 결코 저절로 깃들지 않는다는것을 나는 혁명의 준엄한 년대기마다에 깊이 새겨안았다.

우리의 사회주의조국에 대한 체질적이며 병적인 거부감에 빠져있는 미제의 악랄한 책동으로 하여 이 땅에서는 장장 수십년세월 핵전쟁소동이 언제 한번 멎어본적이 없었다.

하지만 위대한 수령님들의 품속에서 자위의 국방력을 억척으로 벼려온 우리 군대와 인민은 조금도 두려움을 몰랐다.

이제는 우리에게 수소탄이 있다.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를 맞는 뜻깊은 올해의 첫 진군길에서 수소탄의 장엄한 뢰성으로 또다시 영웅조선의 본때를 온 누리에 떨친것은 참으로 경이적인 사변이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숭고한 뜻을 빛나게 이어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계시여 우리 조국의 전도는 양양하며 최후승리의 그 날은 멀지 않았다는 확신으로 하여 나의 심정은 형언할수 없는 감격으로 설레인다.

우리의 전쟁로병들은 자라나는 새 세대들이 1950년대의 조국수호정신, 영웅조선의 기상을 가슴깊이 간직하고 오늘의 승리를 더 큰 승리에로 이어나가도록 하는데서 자기의 본분을 다해나가겠다.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 강사
공화국영웅 양 판 기

## 조선은 결심하면 한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력사적인 신년사를 받아안고 새해의 총진군을 힘있게 다그치고있는 격동적인 시기에 전해진 주체조선의 첫 수소탄시험 완전성공에 관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성명에 대한 소식은 지금 우리 혁명사적부문의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심장을 세차게 뛰어번지게 하고있다. 특히 선군총대의 고향인 우리 평천혁명사적지의 일군들과 강사들, 종업원들의 심정은 류다르다.

지난해 12월 우리 평천혁명사적지를 찾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우리 수령님께서 이곳에서 울리신 력사의 총성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 조국은 나라의 자주권과 민족의 존엄을 굳건히 지킬 자위의 핵탄, 수소탄의 거대한 폭음을 울릴수 있는 강대한 핵보유국으로 될수 있었다고 말씀하시였다.

진정 위대한 수령님께서 울리신 뜻깊은 총성은 오늘의 반미대결전을 승리에로 떠밀어주는 멸적의 뢰성으로, 수소탄의 장쾌한 폭음으로 이 땅우에 메아리치고있는것 아니겠는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당의 자위적군사로선과 병진로선을 철저히 관철하여 국방력을 더욱 강화하여야 한다.》**

우리의 지혜, 우리의 기술, 우리의 힘에 100% 의거한 첫 수소탄시험은 조선인민의 극악한 원쑤 미제를 위수로 한 적대세력들의 날로 가증되는 핵위협과 공갈로부터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과 생존권을 철저히 수호하며 조선반도의 평화와 지역의 안전을 믿음직하게 담보하기 위한 자위적조치이다.

주체조선의 첫 수소탄시험은 우리 조국의 막강한 국력의 파시인 동시에 그 어떤 제재도 압력도 두려워하지 않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철의 담력과 배짱의 일대 파시이다.

선군조선의 막강한 국력을 보여주는 오늘의 이 대사변은 백두산절세위인들의 품속에서 억세여진 우리의 불패의 국력이 얼마나 무게있고 강한가를 다시금 심장으로 절감하게 하고있다.

백두산절세위인들의 령도밑에 다지고 또 다져온 선군조선의 무진막강한 국력을 파시하는 이런 민족사적대경사가 래일에도 끊임없이 이어지리라는 승리자의 신심이 백배해진다.

조선은 결심하면 한다는 말의 참뜻을 아직도 모르고 헤덤비는 미제와 적대세력들은 똑똑히 알아야 한다.

악랄한 원쑤들이 우리 공화국을 겨냥한 압살의 도수를 높일 때마다 우리의 자위적국방력은 더욱 강해졌으며 우리의 일심단결은 핵무기로도 깨뜨릴수 없게 굳건해지기만 하였다.

위대한 백두산대국, 선군으로 존엄높은 우리 조국은 설사 지구가 통채로 깨여진대도 흔들림없이 인류의 정의와 량심을 지켜, 조선민족의 존엄과 자존심을 걸고 반제반미대결전에서 언제나 승리와 영광만을 떨쳐갈것이다.

평천혁명사적관
관장 량 애 경

－화학공업성에서－ 본사기자 김 진 명 찍음

－득장지구탄광련합기업소 룡산탄광에서－ 본사기자 김 광 혁 찍음

－김책공업종합대학에서－ 본사기자 리 동 규 찍음

－평양기관차대에서－ 본사기자 리 진 명 찍음

－사리원시 미곡협동농장에서－ 본사기자 한 광 명 찍음

# 강성국가건설의 최전성기를 열어나가기 위한 총공격전에서 영예로운 승리자가 되자

## 평안남도, 함경남도군중대회 진행

함경남도군중대회장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올해신년사에서 제시하신 강령적 과업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평안남도, 함경남도군중대회가 6일에 각각 진행되였다.

주체조선의 첫 수소탄시험 완전성공으로 반만년민족사에 특기할 대사변을 맞이한 이날 대회장들은 위대한 당의 령도따라 최후승리를 위한 오늘의 총공격전에서 백두산대국의 기상과 본때를 힘있게 과시해나갈 군중들의 드높은 혁명적신념과 의지로 세차게 끓어번지고있었다.

대회장들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태양상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태양상이 모셔져있었다.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 만세!》,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 만세!》라는 구호판들이 대회장들에 세워져있었다.

또한 《위대한 김정은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를 목숨으로 사수하자!》,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올해신년사에서 제시하신 강령적과업을 철저히 관철하자!》,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가 열리는 올해에 강성국가건설의 최전성기를 열어나가자!》, 《당 제7차대회》, 《자강력제일주의》 등의 구호판들과 글발들, 선전화들이 세워져있었다.

지방당, 정권, 경제기관, 근로단체, 공장, 기업소, 농장, 대학 등의 일군들과 근로자들, 청년들이 대회들에 참가하였다.

대회들은 《김정은장군찬가》 주악으로 시작되였다.

### 평안남도에서

평안남도군중대회에서는 박태성 도당위원회 책임비서의 보고에 이어 로동계급을 대표하여 덕천시협동농장경영위원회 위원장 현응실, 청년들을 대표하여 도청년동맹위원회 위원장 문찬호, 지식인들을 대표하여 도농업과학분원 부원장 김전일이 결의토론을 하였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지난해는 뜻깊은 사변들과 경이적인 성과들로 수놓아진 장엄한 투쟁의 해, 선군조선의 존엄과 위용을 높이 떨친 승리와 영광의 해였다고 말하였다.

그들은 도안의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 청년들이 평남땅에 주체의 영원한 태양이시며 백두산대국의 위대한 영상이신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동상을 정중히 모시였으며 조선로동당창건 70돐을 승리자의 대축전으로 빛내이기 위하여 힘차게 투쟁함으로써 룡산청년발전소조업, 봉천탄광 중거리벨트콘베아수송선공사완공, 백송종합식료공장, 맹산식료공장개건 등 어머니당에 드리는 로력적선물들을 마련한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는 주체혁명위업수행에서 력사적인 분수령으로 될 당 제7차대회를 승리자의 대회, 영광의 대회로 빛내여야 합니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가 열리는 올해에 강성국가건설의 최전성기를 열어나가자!》라는 구호를 높이 들고 경제강국건설에 총력을 집중하여 도안의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켜나갈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그들은 화력발전소들을 정비보강하고 만부하로 돌려 전력생산을 더욱 늘이며 룡산청년발전소를 비롯한 중소형발전소들의 정상운영을 짜고드는것과 함께 자연에네르기를 리용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나갈것이라고 말하였다.

도안의 모든 탄광들에서 생산적앙양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려 화력발전소들과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 석탄을 충분히 대주며 남흥의 주체비료생산공정들의 현대화를 다그치고 원료보장대책을 철저히 세워나갈데 대하여 그들은 언급하였다.

그들은 안주시 송학협동농장, 평원군 원화협동농장을 비롯한 협동농장들을 사회주의문화농촌으로 더 잘 꾸리며 당의 농업정책관철에 이바지할수 있는 연구사업을 심화시키고 우량품종과 파학농법을 적극 받아들여 올해 알곡생산계획을 반드시 수행할것이라고 말하였다.

돼지목장과 메기양어장을 번듯하게 건설하며 문덕, 가마포수산사업소를 비롯한 수산기지들과 곳곳에 꾸려진 양어장, 남새온실, 버섯생산기지들이 은을 내게 하여 인민들의 식탁을 더욱 풍성하게 하여야 할것이라고 그들은 언급하였다.

그들은 청년들이 청년강국의 주인으로 내세워준 당의 믿음을 간직하고 강성국가건설의 어렵고 힘든 전구마다에서 영웅적위훈을 떨쳐나갈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 함경남도에서

함경남도군중대회에서는 태종수 도당위원회 책임비서의 보고에 이어 로동계급을 대표하여 흥남비료련합기업소 기사장 림성학, 농업근로자들을 대표하여 함흥시 흥덕구역 룡신협동농장 관리위원장 주황엽, 청년들을 대표하여 도청년동맹위원회 위원장 한인철, 지식인들을 대표하여 함흥화학공업종합대학 총장 한성일이 결의토론을 하였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력사적인 신년사를 받아안은 도안의 전체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가슴가슴은 끝없는 격정과 불타는 충정의 맹세로 세차게 끓어번지고있다고 말하였다.

그들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선군혁명령도의 그 바쁘신 속에서도 지난해에 신포원양수산련합기업소를 찾으시고 황금해의 새 력사를 창조하기 위한 투쟁에서 이곳 기업소가 사회수산부문에서 기치를 들데 대한 크나큰 믿음을 안겨주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지난해 불리한 자연기후조건에서도 파학농법을 적극 받아들여 알곡생산에서 큰 전진을 이룩하였으며 함흥파학자살림집과 육아원, 애육원건설, 마전해수욕장개건공사에서 성과가 이룩되고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서 생산적앙양이 일어났다고 그들은 말하였다.

그들은 도안의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으로 강성국가건설의 최전성기를 열어나가기 위한 오늘의 총공격전에 떨쳐나설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그들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선군혁명령도의 그 바쁘신 속에서도 지난해에 신포원양수산련합기업소를 찾으시고 황금해의 새 력사를 창조하기 위한 투쟁에서 이곳 기업소가 사회수산부문에서 기치를 들데 대한 크나큰 믿음을 안겨주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지난해 불리한 자연기후조건에서도 파학농법을 적극 받아들여 알곡생산에서 큰 전진을 이룩하였으며 함흥파학자살림집과 육아원, 애육원건설, 마전해수욕장개건공사에서 성과가 이룩되고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서 생산적앙양이 일어났다고 그들은 말하였다.

그들은 도안의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으로 강성국가건설의 최전성기를 열어나가기 위한 오늘의 총공격전에 떨쳐나설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장진강발전소의 현대화를 다그치고 함흥청년발전소건설을 앞당기는 등 발전능력을 새로 더 조성하며 자연에네르기를 적극 리용하여 긴장한 전력문제를 해결해나갈것이라고 그들은 말하였다.

그들은 농업근로자들은 사회주의수호전의 제1제대 제1선참호에 서있다는 책임감을 간직하고 농촌경리의 종합적기계화를 다그치며 분조관리제안에서 포전담당책임제를 옳게 실시하여 알곡생산을 획기적으로 늘여나갈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인민군대 수산부문의 투쟁기풍을 따라배워 새로운 고기배들을 무어내고 물고기잡이전투를 힘있게 벌리며 양어를 대대적으로 진행하여 인민들이 그 덕을 보게 할것이라고 그들은 말하였다.

그들은 당의 구상을 받들고 과학기술도서관건설 등 여러 대상공사를 다그치고 산림복구전투에 적극 참가하며 도의 면모를 일신시켜나갈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국가과학원 함흥분원을 비롯한 과학연구부문에서 주체공업, 사회주의자립경제의 위력을 강화하고 인민생활을 향상시키는데서 나서는 파학기술적문제들을 우선적으로 해결하며 최첨단의 새로운 경지를 개척하기 위한 연구사업에 박차를 가할것이라고 그들은 말하였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도안의 모든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력사적인 신년사를 높이 받들고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총공격전에서 영웅적위훈과 기적의 창조자가 될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대회들에서는 결의문이 채택되였다.

《김정은장군 목숨으로 사수하리라》 노래주악으로 대회들은 끝났다.

이어 군중시위들이 있었다.

시위참가자들은 우리 당의 병진로선을 높이 받들고 백두산대국의 국력을 백방으로 다지며 경제강국건설에서 비약의 불바람을 일으켜나갈 혁명적의지가 담긴 구호들을 힘있게 휘치며 거리와 광장을 누벼나갔다.

【조선중앙통신】

#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으로 조선의 기상과 본때를 힘있게 과시하자

## 청년전위들과 로동계급, 직맹원들의 궐기모임 진행

주체조선의 첫 수소탄시험이 완전성공한데 대한 격동적인 소식에 접하여 온 나라가 환희와 격정으로 끓어번지는 속에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올해신년사에서 제시하신 강령적과업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청년전위들과 로동계급, 직맹원들의 궐기모임이 6일에 각각 진행되였다.

리일환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장, 청년동맹, 직맹, 관계부문 일군들, 청년학생들, 로동계급과 직맹원들이 모임들에 참가하였다.

### 청년전위들의 궐기모임

청년공원야외극장에서 진행된 청년전위들의 궐기모임에서는 전용남 청년동맹중앙위원회 위원장의 보고에 이어 김일성종합대학 학생 김영덕, 평양화력발전련합기업소 로동자 조정길, 사동구역 장천남새전문협동농장 농장원 김승실이 토론하였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력사적인 신년사는 온 나라 전체 인민들과 청년들을 주체혁명위업수행에서 력사적인 분수령으로 될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를 승리자의 대회, 영광의 대회로 빛내이기 위한 투쟁에로 힘있게 고무추동하는 전투적기치로 된다고 말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전체 당원들과 인민군장병들과 인민들은 당에 대한 불타는 충정과 비상한 애국열의를 안고 총궐기하여 세기를 주름잡으며 최후승리를 향해 내달리는 조선의 기상과 본때를 힘있게 과시하여야 합니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모든 청년학생들이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사상과 령도를 맨 앞장에서 가장 충직하게 받들어나가는 수령옹위의 제일결사대, 당의 명령과 지시를 하늘이 무너져도 끝까지 관철하는 결사관철의 제일기수가 될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전력, 석탄, 금속공업과 철도운수부문의 청년들은 자강력제일주의를 높이 들고 경제강국건설의 돌격대로서의 전투적위력과 기상을 높이 떨쳐나가야 할것이라고 그들은 말하였다.

그들은 농산, 축산, 수산부문과 경공업부문의 청년들이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투쟁에서 자기들이 맡고있는 임무의 중요성을 깊이 자각하고 청춘의 지혜와 열정을 다 바쳐 생산적앙양을 일으킴으로써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인민사랑의 뜻을 충직하게 받들어나갈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당의 건설방침과 대건설구상을 실현하기 위한 총공격전을 벌려 백두산영웅청년3호발전소를 비롯한 중요대상들을 최상의 수준에서 최대의 속도로 일떠세우며 건설의 대번영기가 끊임없이 이어지게 하는데 적극 이바지할데 대하여 그들은 말하였다.

그들은 김정일애국주의로 심장을 불태우며 산림복구전투를 본격적으로 벌리고 도시와 농촌, 일터와 마을들을 알뜰하게 꾸리는데 청춘의 땀과 열정을 다 바쳐나갈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청년과학자, 기술자, 대학생들은 과학기술의 기관차로 부강조국건설을 다그쳐나가려는 우리 당의 구상과 의도를 관철하기 위한 사업에서 맡은 본분을 다하며 강성국가건설위업을 떠메고나갈 유능한 혁명인재로 준비해나가야 할것이라고 그들은 말하였다.

그들은 청년동맹조직들에서 5대교양에 화력을 집중하여 모든 청년들을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을 뼈속깊이 새긴 사상의 강자들로 튼튼히 준비시킬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동맹안에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유일적령도체계를 철저히 세우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벌리며 모든 청년동맹원들을 김일성-김정일주의기치따라 나아가는 우리 당의 믿음직한 청년전위로 더욱 튼튼히 준비시켜나갈것이라고 그들은 말하였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모든 청년들이 최강의 핵억제력을 갖춘 존엄높은 김일성, 김정일민족의 영예와 긍지드높이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와 청년동맹창립 70돐을 전례없는 로력적성과와 청년사업의 새로운 성과로 장식함으로써 세상에 둘도 없는 청년강국의 존엄과 위용을 다시한번 힘있게 떨쳐나갈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 로동계급과 직맹원들의 궐기모임

남흥청년화학련합기업소에서 진행된 로동계급과 직맹원들의 궐기모임에서는 주영길 직총중앙위원회 위원장의 보고에 이어 평안남도직맹위원회 위원장 팍인근, 남흥청년화학련합기업소 부기사장 천종국, 만경대애국늄창공장 로동자 황호철이 결의토론을 하였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력사적인 신년사는 천만군민을 강성국가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기 위한 총공격전에로 부르는 전투적기치이라고 강조하였다.

그들은 각급 직맹조직들이 모든 직맹원들을 수령의 유훈관철전, 당정책옹위전에서 붉굴의 정신력을 총폭발시켜나가도록 하기 위한 교양사업에 화력을 집중하여야 할것이라고 말하였다.

전체 로동계급과 직맹원들이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제시하신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가 열리는 올해에 강성국가건설의 최전성기를 열어나가자!》라는 전투적구호를 높이 들고 최후승리를 향한 총공격전에 파감히 떨쳐나설데 대하여 그들은 언급하였다.

그들은 인민경제 선행부문, 기초공업부문의 로동계급과 직맹원들이 총진격의 앞장에서 힘차게 내달려 경제강국건설에서 전환의 돌파구를 열어나가야 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농업전선을 계속 힘있게 지원하며 축산과 수산부문에서 생산을 빨리 장성시키고 공장, 기업소들에서 자체로 건설한 양어장과 남새온실, 버섯생산기지들이 은을 내게 함으로써 인민들의 식생활을 향상시킬데 대한 당의 의도를 실현하는데 적극 기여할데 대하여 그들은 말하였다.

그들은 경공업부문에서 생산을 활기있게 내밀고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진 명제품, 명상품들을 더 많이 내놓으며 건설부문의 로동계급은 중요생산시설들과 교육문화시설, 살림집들을 시대의 본보기, 표준이 되게 최상의 수준에서 최대의 속도로 일떠세워야 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공장, 기업소들에서 제품의 질제고와 설비, 원료자재의 국산화를 중요한 정책적문제로 들어쥐고 내밀며 산림복구전투에 적극 참가하는것과 함께 파학기술의 힘으로 제기되는 문제들을 풀어나가는 기풍을 확립해나갈것이라고 그들은 말하였다.

그들은 인민경제 모든 부문의 로동계급과 직맹원들은 우리의 지혜, 우리의 기술, 우리의 힘으로 선군조선의 첫 수소탄시험을 완전히 성공시킨 그 기상, 그 본때로 자강력제일주의를 높이 발휘하여 강성국가건설대업과 인민의 아름다운 꿈과 리상을 반드시 이룩해나가야 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가 열리는 뜻깊은 올해에 경제강국건설에 총력을 집중하여 나라의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에서 새로운 전환을 가져오기 위한 집단적경쟁열풍을 세차게 일으킬것을 전국의 공장, 기업소들에 열렬히 호소하였다.

이어 사회주의경쟁요강이 발표되였다.

모임들에서는 결의문이 채택되였다.

# 재일조선인운동의 새로운 전성기를 열어나갈것이다

## 총련일군들이 강조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력사적인 신년사와 새해축전을 커다란 격정과 흥분속에 받아안은 총련일군들이 재일조선인운동의 새로운 전성기를 열어나갈 불같은 결의들을 다지였다.

김성훈 총련중앙상임위원회 선전문화국장은 영광스러운 조선로동당과 조국력사에 빛나는 리정표를 아로새긴 승리와 영광의 해 2015년을 보내고 맞이한 새해에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하신 력사적인 신년사와 허종만 재일본조선인총련합회 중앙상임위원회 의장에게 보내주신 축전을 받아안고 누를길 없는 감격과 함께 주체위업의 최후승리에 대한 신심과 락관으로 가슴벅차오르고있다고 밝혔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주체혁명위업수행에서 력사적인 분수령으로 될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를 승리자의 대회, 영광의 대회로 빛내일 웅대한 구상을 펼치시고 경제강국건설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며 자주통일의 새시대를 열어나갈 앞길을 밝혀주시였으니 위대한 령도자를 높이 모신 행복과 긍지가 차넘치고 새 힘이 용솟음친다고 그는 피력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새해축전에서 지난해에 총련은 류례없이 복잡한 정세속에서 내외반동들의 악랄한 반총련탄압책동을 파감히 짓부시고 위대한 수령님들의 애국유산인 총련을 굳건히 지켜냈으며 자랑찬 애국사업성과로 총련결성 60돐을 빛나게 장식하였다고 분에 넘치게 치하하여주시였으며 뜻깊은 올해 총련이 나아갈 방향과 과업을 명철하게 밝혀주시였다고 그는 언명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와 새해축전은 당 제7차대회를 향한 총진군에 용약 떨쳐나선 조국인민들과 더불어 일대 진격전을 벌려나갈 우리 총련과 재일동포들의 승리의 보검이며 고무적기치라고 그는 강조하였다.

그는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가 열리는 올해에 강성국가건설의 최전성기를 열어나가자!》고 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부르심을 심장에 새기고 총련을 백두산절세위인들의 존함으로 빛나는 강위력한 주체적해외교포조직으로 더욱 반석같이 다져나갈것이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계속하였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주체적해외교포운동사상과 령도업적을 견결히 옹호고수하고 빛내이며 총련조직안에 경애하는 원수님의 유일적령도체계를 철저히 세우는것을 생명선으로 틀어쥐고나가겠다.

총련대오의 일심단결과 동포들사이에 오가는 따뜻한 정속에 총련의 힘이 있고 재일조선인운동의 새로운 전성기도 있다고 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말씀을 심장에 새기고 대오의 일심단결을 강화해나가겠다.

총련의 5대교양을 확고히 틀어쥐고 선전교양사업을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더욱 진공적으로 벌려나감으로써 일군들과 동포들의 정신력을 크게 불러일으키겠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현명한 령도따라 위대한 수령님들의 품속에서 성장한 총련의 위용을 세계만방에 더욱 힘있게 떨쳐나갈것이다.

김용주 재일본조선청년동맹(조청) 중앙상임위원회 위원장은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가 열리는 새해에 재일조선인운동의 새로운 전성기를 열어나갈 휘황한 앞길을 펼쳐주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력사적인 올해 신년사와 새해축전은 재일동포청년들에게 필승의 신심과 락관을 안겨주고있다고 피력하였다.

특히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신년사에서 오늘 우리 조국이 청년강국의 위용을 떨치고있는데 대하여 긍지높이 총화하시면서 청년전위들이 이룩한 위훈에 대하여 더없는 긍지, 커다란 승리로 평가하여주신 말씀을 받아안고 해외에서 청년일군으로 살며 일하는 영예와 긍지에 넘쳐있다고 그는 밝혔다.

그는 영웅청년신화를 끊임없이 창조해나가는 조국청년들과 발걸음을 같이하여 위대한 수령님들의 품속에서 성장한 총련의 위용을 세계만방에 더욱 힘있게 떨쳐나가는 진군길에서 조청이 앞장서나가겠다고 강조하였다.

그는 보다 광범한 동포청년들을 조청조직의 두리에 묶어세우고 그들의 애족애국의 정신력을 총폭발시켜 재일조선청년운동의 새 기상, 새 모습을 뚜렷이 보여줄 의지를 표명하였다.

장병태 조선대학교 학장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력사적인 신년사와 새해축전은 조국인민들과 더불어 총련교육일군들을 새로운 투쟁과 위훈에로 불러일으키는 전투적기치이라고 언명하였다.

그는 백두산절세위인들의 불멸의 업적이 깃들어있는 조선대학교창립 60돐과 중등교육실시 70돐을 맞는 뜻깊은 올해에 민족교육강화에서 전환점을 기어이 안아올것이라고 말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새해축전에서 또다시 민족교육사업에 큰 힘을 넣을데 대하여 강조하신 깊은 뜻을 심장에 새겨안고 민족교육에서 주체를 철저히 세워 조국애와 민족성을 심어주는데 주력하며 지식경제시대에 맞게 교육내용과 방법을 개선하여 민족교육의 우월성과 생활력을 힘있게 과시해나가는데서 대학이 지닌 사명과 임무를 다해나가겠다고 그는 밝혔다.

그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청년중시사상을 가슴속에 새기고 대학교육수준을 부단히 높여 학생들을 참다운 애국자, 유능한 전문가들로 키워냄으로써 존엄높은 공화국의 해외교포대학으로서의 명성을 떨쳐나가겠다고 피력하였다.

그는 재일조선인운동의 생명선인 민족교육사업에서부터 영광스러운 김정은시대 총련애족애국위업의 새로운 전성기의 활로를 열어나갈것을 굳게 결의한다고 강조하였다.

【조선중앙통신】

# 재일조선학생소년예술단을 위한 연회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령도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학생소년들의 주체105(2016)년 설맞이 공연에 참가한 재일조선학생소년예술단을 위하여 마련해주신 연회가 6일 인민문화궁전에서 있었다.

연회에는 신길웅 도쿄조선중고급학교 교장을 단장으로 하는 재일조선학생소년예술단이 초대되였다.

리일환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장, 김진국 해외동포사업국 국장, 강원규 청년동맹중앙위원회 부위원장, 관계부문 일군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연회에서는 연설들이 있었다.

연회참가자들은 백두산대국의 존엄과 영광의 상징이시며 우리의 운명이시고 미래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부디 안녕하시기를 삼가 축원하였다.

연회에서는 평양시내 학생소년들과 재일조선학생소년예술단 성원들의 련환공연이 있었다.

【조선중앙통신】

#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믿음직하게 수호하기 위한 정정당당한 조치

## 수소탄보유는 그 누구도 시비할수 없는 우리의 자위적권리

2016년 새해에 들어선지 한주일이 채 못되여 충격적이면서도 거대한 사변이 일어났다. 주체조선의 첫 수소탄시험이 성공적으로 진행된것이다. 지금 이 소식은 언론들을 통해 급속도로 전해지면서 온 지구를 진감시키고있다.

많은 나라 인민들은 수소탄까지 보유한 핵보유국의 전렬에 당당히 들어선 우리 나라를 한없는 경탄과 부러움에 찬 눈길로 바라보고있다. 약육강식의 생존방식, 생활질서가 허물수 없는 국제관계로 굳어져있으며 절대다수 나라들이 이를 어쩔수 없는것으로 여기고 습관되어있는 세계, 특정한 핵보유국들이 과반수나라들을 침략, 략탈하고 억압하는 불공평한 국제사회에서 비핵국가들이 핵보유국의 대렬에 들어선다는 것은 엄두도 낼수 없고 상상도 할수 없는 일이다.

현재 세계적으로 핵보유국은 공개된 핵시험을 한적이 없는 이스라엘까지 포함하여 9개 나라로 인정되고있다. 자료에 의하면 그중에서도 수소탄을 보유한 나라들은 5개의 유엔안전보장리사회 상임리사국들뿐이였다. 우리 나라가 올해 초에 첫 수소탄시험에서 완전성공함으로써 수소탄까지 보유한 핵보유국대렬은 6개로 늘어났다.

자료가 보여주다싶이 핵보유는 세계에서 몇손가락에 꼽히는 강국들의 합법적인 권리로만 되여있다. 강국의 흉내를 내려는것자체가 곧 죽음으로 되여있는것이 오늘의 세계이다.

력사에는 핵보유에 마음이 끌렸던 일부 나라들이 미국을 비롯한 제국주의렬강들의 강권과 전횡에 눌리워 핵을 포기하였으며 나중에는 국가주권이 통락당하고 인민이 망국의 불행에 빠져든 비참한 사실들을 기록하고있다.

그런 속에서 우리 공화국은 이미 핵보유국의 지위를 쟁취하였고 올해초에는 첫 수소탄의 거대한 폭음을 울림으로써 최강의 핵억제력을 갖춘 나라로 되였다. 사면팔방에서 조여들면서 초강도로 감행하는 적대세력들의 정치군사적압박과 경제재재책동을 불굴의 의지로 짓부시며 주체조선, 선군조선이 수소탄시험을 하여 대성공한것은 세계를 놀래우는 경이적인 사변이며 력사에 류례를 찾아볼수 없는 기적중의 기적이다.

미제와 그 추종세력들은 공포에 떨고있다. 우리 공화국을 압살하려고 최후발악하는 적대세력들에게 있어서 우리의 수소탄시험의 완전성공은 그야말로 무서운 악몽으로, 청천벽력으로 된다.

우리의 수소탄의 폭음은 미국이 극악무도하게 대조선적대시정책을 강행해도 그것은 반드시 파탄을 면치 못한다는것을 다시한번 선고한것으로 된다. 또한 강국의 권리는 타고난것이 아니며 국제관계에서 힘에 의거한 강권과 전횡이 함부로 통할수 없다는것을 널리 과시한것으로 된다.

우리의 핵무장해제를 어떻게 해서나 강행하여 세계에 수립해놓은 미국주도의 패권주의적질서를 한사코 부지해보려던 오바마행정부의 야망은 더이상 실현불가능한 망상이 되고말았다. 우리 당의 병진로선이 빠른 속도로 관철되고 우리의 핵억제력이 비상히 강화되는데 대해 불안초조해하던 미국내의 강경보수세력들 속에서도 이미 조선파는 군사적대결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하여서는 안된다는 비명소리들이 적지 않게 울려나왔었다. 우리 공화국이 수소탄까지 보유한 핵강국이 된 오늘에 와서 미국이 군사적으로 우리와 대결한다는것은 곧 멸망을 선택하는것으로 된다.

우리가 진행한 수소탄시험이 완전성공하였다는 보도가 나가자마자 미국을 비롯한 적대세력들은 악의에 차서 시비질하며 문제시하고있다. 적대세력들은 우리의 《위협》파 《도발》타령을 늘어놓으면서 비상대비태세에 들어간다, 관계국들과 련대하여 대응책을 협의한다 하며 야단법석하고있다. 그들의 그러한 책동이 오히려 사태해결을 보다 복잡하게 만들고 조선반도정세와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위태롭게 할것이다. 적대세력들은 우리의 수소탄시험에 대해 입아프게 헐뜯지 말아야 하며 우리의 권리에 대해 문제시하지 말아야 한다.

수소탄시험, 수소탄보유는 우리 나라의 합법적인 자위적권리이며 그 누구도 시비할수 없는 정정당당한 조치로 된다.

우리 공화국은 핵무기전파방지조약(NPT)밖에 있는 나라이다. 따라서 우리 나라는 그 조약의 구속을 전혀 받지 않게 되여있다. 유엔헌장은 매개 나라의 자주권을 인정하고 존중하는것을 원칙으로 삼고있다.

우리 공화국의 수소탄시험은 어느 국제법에 비추어보아도 위반될것이 하나도 없다. 오히려 우리의 이번 조치를 놓고 험담을 늘어놓으며 문제시하는것이 국제법의 정신에 어긋나며 그를 위태롭게 하는것이다.

우리의 수소탄시험 및 보유는 미국을 위수로 한 적대세력들의 날로 가증되는 핵위협공갈로부터 나라의 자주권과 민족의 생존권을 철저히 수호하며 조선반도의 평화와 지역의 안전을 믿음직하게 담보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행사해야 할 자위적권리이다.

미국이 적대시하는 나라들은 세계에 적지 않다. 그렇지만 우리 나라처럼 뿌리깊고 포악무도하며 짐요한 미국의 적대시정책의 피해를 받는 나라는 없다.

우리 나라가 해방된 때부터 남조선을 군사적으로 가로타고앉아 국토를 분렬시키고 민족대결을 부추긴 장본자도 미국이고 1950년대 조선전쟁을 일으켜 우리 민족에게 전쟁의 참화를 들씌운 도발자, 범죄자도 다름아닌 미국이다.

사상과 제도가 다르고 저들의 침략야욕에 굴종하지 않는다고 하여 우리 나라에 천추에 용납 못할 전대미문의 정치적고립과 경제적봉쇄, 군사적압박을 가해오다 못해 핵참화까지 들씌우려고 발광하는 미국의 죄악은 그 무엇으로써도 감출수 없고 변명할수도 없다.

우리 공화국에 대한 미국의 핵위협공갈은 지난 조선전쟁때부터 시작되였다. 전쟁에서 패하고 우리 군대와 인민에게 항복서를 바친 미국은 그후에도 조선반도에서 핵전쟁을 도발할 흉계를 여러차례 꾸몄다.

미국이 1950년대 중엽에 우리 나라의 주요도시들을 포함한 사회주의나라들의 수천개 주요대상들과 지역들을 목표로 극악한 핵폭탄투하공격계획을 작성해놓고있었다는것이 최근에 공개되였다. 당시 미행정부는 우리 나라와 이전 쏘련과 동유럽나라들, 중국의 도시들을 핵공격대상으로 선정하였다고 한다. 미국은 이 계획실현을 위해 일본의 히로시마에 투하한 원자탄 4 000개와 맞먹는 폭발력을 가진 핵무기개발도 획책하였다.

미국신문 《뉴욕 타임스》는 이에 대해 전하면서 미당국이 특히 주민들을 핵공격목표로 삼은것은 국제규범에 엄중히 위반되는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랭전이 종식된 이후에도 미국은 우리 나라에 대한 핵위협공갈정책을 거두지 않았다. 해마다 계절별로 대규모합동군사연습들을 벌려놓고 핵항공모함타격집단과 핵전략비행대를 포함한 모든 핵타격수단들을 끊임없이 들이밀면서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는 핵전쟁을 도발하려고 획책하였다.

우리를 핵무장해제시키려는 야망이 물거품이 되자 추종세력들을 규합하여 대조선경제제재와 모략적인 《인권》소동에 매달리면서 우리의 강성국가건설과 인민생활향상을 가로막고 《제도붕괴》를 실현하기 위해 눈에 피발을 세우고 날뛰고있다. 방대한 각종 핵살인무기로 우리 민족에게 핵참화를 들씌우려는 침략의 원흉 미국의 핵전쟁도발책동에 대처하는것은 우리 공화국의 마땅한 권리이다.

지금까지 미국의 핵위협공갈을 받는 우리 나라를 그 어느 나라도 구원해주려고 하지 않았고 동정도 하지 않았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엄혹한 현실에서 자기 운명은 오직 자기 힘으로 지켜야 한다는 철의 진리를 심장깊이 새기게 되였다.

때문에 우리는 이번에 정의의 수소탄을 들어쥐게 되였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미국이 대조선적대시정책실행에 발광하면서 무모하게 날뛸수록 우리 당의 병진로선을 철저히 관철해나갈것이며 앞으로도 우리의 모든 자위적권리를 굴함없이, 당당하게 행사해나갈것이다.

리 경 수

### 진 정 한 평 화 와 안 전

◇ 주체조선이 첫 수소탄시험에서 완전성공한 특대소식이 천지를 진감하고있다.

이번에 우리 공화국이 이룩한 수소탄시험의 눈부신 대성공은 민족의 천만년미래를 담보하는 력사의 대장거, 민족사적사변으로 된다.

100% 우리의 힘과 기술, 지혜에 의거하여 진행한 첫 수소탄시험이 가장 완벽하게 성공함으로써 우리 공화국은 보다 높은 단계에 오른 자기의 핵무력발전수준을 세계에 남김없이 과시하였으며 이제는 수소탄까지 보유한 핵보유국의 전렬에 당당히 들어설수 있게 되였다.

오늘의 사변은 우리 공화국을 희망의 등대로 바라보고있는 세계 진보적인민들속에서 경탄과 찬사를 불러일으키고있다. 반면에 핵몽둥이를 휘두르며 우리를 군사적으로 압박해보려고 미쳐날뛰던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에게는 무서운 철추로 되여 공포와 전률에 떨게 하고있다.

◇ 진정한 평화와 안전은 바로 자기의 강위력한 힘에 의하여 담보된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군력이자 국력이며 군력을 백방으로 강화하는 길에 강성국가도 있고 인민의 안녕과 행복도 있습니다. 우리는 위대한 선군의 기치를 높이 들고 군력강화에 계속 큰 힘을 넣어 조국의 안전과 나라의 자주권을 믿음직하게 지키며 지역의 안정과 세계의 평화를 수호하는데 기여하여야 합니다.》

진정한 평화와 안전은 그 누가 가져다주지 않으며 청탁이나 타협으로도 실현될수 없다.

오늘의 국제무대를 보라.

이라크가 대통령궁전까지 미국에 보이면서 전쟁을 일으키지 말아달라고 청탁한 결과는 어떤 비극을 몰아왔는가. 리비아가 자기의 핵계획문건들을 미국에 고스란히 바치며 《원조》와 《관계개선》을 요구한 후과는 어떤 참상을 빚어냈는가.

지금 미국을 비롯한 제국주의렬강들은 자기들의 군사적강권을 발동하여 주권국가들의 내정에 간섭하고 힘이 약한 나라들을 쑥대밭으로 만들고있다.

이 나라들이 미국과 타협하고 수그러든 결과 차례진것은 예속과 불평등뿐이며 흐르는것은 피와 눈물뿐이다.

오늘의 엄혹한 현실은 힘에 의한 강권과 전횡이 살판치는 현 세계에서 자기 운명은 오직 자기 힘으로 지켜야 하며 이 길에 진정한 평화와 안전, 민족의 부흥발전이 있다는것을 가르치고있다.

우리 공화국이 단행한 수소탄시험은 적대세력들의 날로 가증되는 핵위협과 공갈로부터 나라의 자주권과 민족의 생존권을 철저히 수호하며 조선반도의 평화와 지역의 안전을 믿음직하게 담보하기 위한 자위적조치이다.

◇ 우리 군대와 인민은 앞으로도 평화와 안전수호의 제일담보인 정의로운 핵억제력을 질량적으로 부단히 강화해나갈것이다.

력사적교훈은 그 어떤 양보나 구걸로는 평화와 안전을 이룩할수 없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우리는 력사의 교훈과 오늘의 국제정세를 놓고 뼈저리게 느끼는것이 있다. 그것은 자기를 잡아먹겠다고 으르렁대는 승냥이무리들앞에서는 사냥총을 놓을것이 아니라 더욱 억세게 틀어잡아야 한다는것이다.

한세기전 우리 민족이 겪지 않으면 안되였던 수난의 력사가 이 진리를 더욱 깊이 새겨주고있다.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는 우리 나라가 자기를 지킬 변변한 총 한자루도 없어 렬강들의 각축전마당으로 전락된 피의 교훈은 우리로 하여금 전쟁억제력을 끊임없이 강화해나갈것을 요구하고있다.

미국의 극악무도한 대조선적대시정책이 근절되지 않는 한, 세계무대에서 제국주의침략세력들의 힘에 의한 주권유린행위들이 사라지지 않는 한 우리는 절대로 핵을 포기하거나 그 개발을 중단하지 않을것이다.

핵뢰성을 터뜨린 민족의 커다란 긍지와 자부심을 안고 강성국가건설의 최후승리를 이룩하기 위하여 투쟁하고있는 천만군민의 힘찬 전진을 미국은 그 무엇으로써도 가로막을수 없다.

이제 세계는 위대한 조선로동당이 높이 추켜든 병진로선의 기치따라 우리 군대와 인민이 자기의 귀중한 평화와 안전을 어떻게 믿음직하게 수호해나가는가를 똑똑히 보게 될것이다.

## 주체조선의 첫 수소탄시험이 완전성공한 소식을 여러 나라에서 일제히 보도

조선로동당 제1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조선로동당을 대표하여 주체조선의 첫 수소탄시험을 진행할데 대한 명령을 하달하신데 이어 최종명령서에 수표하신 소식과 조선로동당의 전략적결심에 따라 첫 수소탄시험이 성공적으로 진행된 소식을 6일 여러 나라에서 일제히 보도하였다.

로씨야의 따쓰통신은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김정은령도자께서 조선로동당을 대표하여 2015년 12월 15일 수소탄시험을 진행할데 대한 명령을 하달하시였으며 2016년 1월 3일 최종명령서에 수표하시였다고 6일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자체의 기술에 기초하여 개발한 수소탄의 시험이 성과적으로 진행되였다.

공화국정부는 이 시험이 현지시간으로 6일 10시에 조선로동당의 전략적결심에 따라 주위생태환경에 그 어떤 부정적인 영향도 전혀 주지 않고 진행되였다고 성명하였다.

결과 조선은 최강의 핵억제력을 갖추었다고 성명은 강조하였다.

리아 노보스찌통신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수소탄시험을 성과적으로 진행한데 대한 공화국정부성명을 조선중앙텔레비죤방송이 보도하였다, 정부성명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책임있는 핵보유국으로서 나라의 자주권이 침해당하지 않는 한 이미 천명한대로 먼저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을것이라고 강조하였다고 전하였다.

미국의 AP통신은 조선이 수소탄시험을 성과적으로 진행한데 대해 성명을 발표하였다고 하면서 수소탄은 일반적으로 핵폭탄보다 더욱 위력하다고 밝혔다.

중국의 신화통신, 중앙TV방송, 보도망, 국제방송망, 인디아의 인디아-아시아통신과 신문 《스테이츠맨》, 오스트랄리아의 ABC방송, 영국의 로이터통신과 BBC방송, 미국의 CNN방송, 일본의 교도통신, 지지통신, 《니홍게이자이신붕》, 《마이니찌신붕》, 《아사히신붕》도 《조선 첫 수소탄을 터뜨렸다》, 《조선 수소탄시험 성공 발표》 등의 제목으로 주체조선의 첫 수소탄시험성공소식을 긴급보도하였다.

【조선중앙통신】

## 《전략적인내》정책은 종말을 고하였다

주체조선의 첫 수소탄시험 완전성공!

한순간에 그 의미를 다 되새겨보기에는 맞이한 사변이 너무도 가슴벅차다. 몇 안되는 대국들의 군사적독점물로 되여있던 수소탄이 주체조선의 손에 쥐여졌다.

원쑤들은 극도로 경악하고있다. 《전략적인내》정책의 제창자인 오바마를 비롯한 백악관의 대조선적대시정책작성자들이 제일먼저 전률할것이다.

우리가 수소탄까지 보유한 핵보유국의 전렬에 당당히 올라선 오늘날 미국은 저들의 대조선적대시정책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가에 대해 깨달아야 한다. 이번에 우리 공화국이 단행한 수소탄시험은 미국을 위수로 한 적대세력들의 날로 가증되는 핵위협과 공갈, 더우기는 미국이 우리를 오판하고 실행해오던 《전략적인내》정책에 대한 대답으로 된다.

2009년에 오바마는 백악관의 주인으로 들어앉은지 얼마 안되여 대조선적대시정책의 골간으로 《전략적인내》정책이라는 간판을 내들었다. 오바마정권이 들고나온 《전략적인내》정책이란 우리가 《선 핵포기》라는 행동변화를 보일 때까지 우리와의 대화를 거부하고 압박과 제재를 가하면서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린다는 정책이다.

오바마가 《전략적인내》라는 낱말까지 만들어내며 제나름의 정책을 내놓았지만 그것은 본질에 있어서 우리 공화국을 고립압살하기 위한 선임정권들의 대조선적대시정책과 다른것이 없었다. 오히려 오바마정권에 이르러 우리에 대한 적대행위는 극도에 달하였다.

미국은 있지도 않는 우리의 《핵문제》를 코에 걸고 침략기도를 로골화하였던 지난 세기 90년대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그 무엇으로써도 우리를 꺾을수 없었다.

우리는 미국의 정치, 군사적도발책동과 경제제재에 맞서 자위의 전쟁억제력과 경제적토대를 든든히 다졌으며 그 과정에 인공지구위성제작 및 발사국, 핵보유국의 지위에 당당히 올라섰다.

특히 미국이 핵으로 우리를 위협하는 조건에서 자위적조치로서 여러차례의 핵시험을 성공적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강경대응조치들은 우리에 대한 고립압살책동에 열을 올리다 못해 주권국가의 함법적권리인 인공지구위성발사까지 문제시하며 포악무도하게 놀아댄 미국에 대한 실제적대응조치의 일환이였다.

이때라도 미국은 우리가 이미 전에 준 충고와 경고들을 다시 한번 새겨보고 정책전환을 하였어야 하였다. 하지만 미국은 보다 강도높은 《제재결의》들을 련이어 조작해내는 한편 방대한 침략무력을 동원하여 핵전쟁연습을 끊임없이 벌려놓았다.

이러한 극단적인 상황에서 우리 공화국은 자위적핵무력을 천백배로 강화하여 반미대결전을 총결산하며 이 땅우에 천하제일강국, 인민의 락원을 일떠세우려는 신념과 의지를 안고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의 병진로선을 법화하였다.

이것 또한 핵위협공갈에 기초한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이 우리에게 절대로 통하지 않는다는것을 온 세계에 알리는 장쾌한 력사적선언, 미국을 헤여나올수 없는 궁지에 몰아넣은 통쾌한 일이였다.

미국내에서까지도 이미 실패한 《전략적인내》정책을 버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울려나왔다. 미국회의 여러 의원들과 공화당소속 강경보수세력들, 전문가들은 오바마의 정책이 조선으로 하여금 로케트기술을 향상시키고 핵탄두를 소형화하는데 성공하도록 하였고 미국의 안전에 대한 《위협이 증대》되도록 하였다고 떠들어댔다. 그러면서 대조선문제에서 《주도권을 내놓은 정책》, 《태만한 정책》, 《수동적정책》, 《완패한 정책》이라고 별의별 비난을 다 쏟아부었다.

오바마는 늦게나마 자기의 엄청난 정책적오유를 깨달았어야 하였다. 그러나 오바마는 집권말기에 이른 오늘까지도 행차뒤 나발이 되여버린 《전략적인내》정책을 버리지 않았다. 지난해에만도 합동군사연습을 림시중지하면 핵시험을 림시중지할수 있다는 우리의 제안에 로골적으로 반기를 들면서 각종 합동군사연습을 련이어 벌려놓았다.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어 조선반도에서 전쟁위험을 제거하고 긴장을 완화하며 평화적환경을 마련할데 대한 우리의 공명정대한 요구를 한사코 외면하고 시대착오적인 대조선적대시정책에 계속 매여달리였다.

미제침략군의 핵항공모함타격집단과 핵전략비행대를 포함한 모든 핵타격수단들이 끊임없이 쓸어들어 조선반도와 그 주변을 세계최대의 열점지역, 핵전쟁의 발화점으로 만들었다.

불순세력들을 규합하여 형형색색의 대조선경제제재와 모략적인 《인권》소동에 매달리면서 우리의 목을 조이고 《제도붕괴》를 실현해보려고 최후발악하였다.

굴종과 치욕은 우리와 인연이 없다. 우리에게는 오직 자기 운명은 자기 힘으로 지켜야 한다는 철의 진리만이 있다.

미국은 각종 핵무기를 가지고 지금껏 우리를 위협공갈하였으며 《전략적인내》정책의 《승리》를 꿈꾸어왔다.

그러나 우리에게도 수소탄이 있다. 미국의 《전략적인내》정책은 종국적파멸을 맞이하였다.

남조선강점의 첫걸음을 뗀 트루먼으로부터 시작하여 오바마에 이르기까지 계속되여온 대조선적대시정책이 근절되지 않는한 우리는 나라의 자주권과 민족의 생존권을 철저히 수호하며 조선반도의 평화와 지역의 안전을 믿음직하게 담보하기 위한 정의로운 핵억제력을 질량적으로 부단히 강화해나갈것이다.

본사기자 리 철 혁

## 핵위협공갈을 일삼은 미국의 범죄정체

세계적으로 우리 민족만큼 미국의 핵위협공갈을 가장 직접적으로 제일 오래동안 받아온 민족은 없다. 우리 인민에게 있어서 미국의 핵위협공갈은 결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현실적이며 구체적인 체험이였다.

1950년 6월 조선전쟁을 도발한 미국은 우리 나라에 원자탄을 투하할 계획을 로골적으로 드러내놓았다.

1950년 11월 30일 당시 미국대통령이였던 트루맨은 조선전선에서의 원자탄사용에 대해 공개적으로 폭언하였으며 같은 날 미전략항공대에는 《극동에 즉시적인 원자탄투하를 위해 폭격기들을 날려보낼수 있도록 대기》할데 대한 지시가 하달되였다.

뿐만아니라 미극동군사령관이였던 맥아더는 그해 12월 《조선북부에 동해로부터 서해에 이르는 방사능복도지대를 형성할것이다. 그 지대안에서는 60년 혹은 120년동안 생명체가 소생하지 못할것이다.》라는 망발을 늘어놓았다.

그때 인천앞바다에 정박하고있던 미항공모함에는 핵탄을 탑재한 함재기들이 출격명령을 기다리고있었다.

1952년 대통령선거에서 당선된 아이젠하워는 《교섭보다 행동이 제일》이라고 하면서 《우리가 조선에서 보다 실제적인 행동에로 넘어가자면 원자탄을 사용하여야 할것이다.》라고 뇌까렸다.

전후에도 미국은 우리에 대한 핵공격을 위해 남조선에 핵무기를 대대적으로 끌어들였다.

핵무기를 남조선으로 들이밀 계획을 세운 미국은 1957년에 남조선에 방대한 핵무기들을 반입, 배비하였다.

남조선에 대한 미국의 핵무기 배비는 나날이 증대되여 그 수가 1970년대에는 1 000여개에 달하였으며 1990년대에는 1 720개를 넘어섰다. 남조선은 말그대로 세계최대의 핵화약고, 핵전초기지로 전변되였다.

미국은 남조선에 배비한 핵무기를 실지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는 핵전쟁에 써먹기 위해 남조선과 그 주변에서 전쟁연습을 끊임없이 벌려놓았다. 1969년 《포커스 레티너》 작전으로 시작된 미국남조선합동핵전쟁연습은 그이후 《프리덤 볼트》, 《팀 스피리트》, 《련합전시증원연습》, 《키 리졸브》, 《독수리》와 《을지 프리덤 가디언》 등으로 이름을 바꾸며 수십년동안 감행되여오고있다. 실로 남조선에서는 북침핵전쟁연습이 어느 하루도 그칠새 없었다.

우리는 미국의 핵위협공갈을 해소하기 위해 여러가지 제안을 내놓으며 성의있는 노력을 기울였지만 그때마다 미국은 우리의 제안을 외면한채 저들의 불순한 목적달성을 위해 피눈이 되여 날뛰였다.

우리에 대한 미국의 핵위협공갈은 부쉬행정부시기에 와서 극도에 달하였다. 부쉬행정부는 클린톤행정부시기에 채택되였던 조선반도핵문제해결을 위한 《조미기본합의문》을 일방적으로 파기하였을뿐아니라 우리 나라를 《악의 축》으로 지명하고 핵선제공격대상명단에 포함시켰다.

미국의 극도에 이른 핵위협공갈에 대처하기 위해 우리는 2003년에 핵무기전파방지조약에서 완전히 탈퇴하는 단호한 조치를 취하였으며 2006년에 첫 핵시험을 진행하고 2009년에는 2차핵시험을, 2013년에는 3차핵시험을 진행하였다.

오바마행정부시기에 와서 미국은 우리에 대한 적대시정책을 포기하는데로 나간것이 아니라 오히려 보다 더 강도높은 핵위협공갈을 들이대였다. 우리를 압살하기 위한 정치, 군사, 경제, 사상문화, 《인권》 등 분야에서의 공세작전을 전례없이 강화하였다. 그로 하여 조선반도는 세계최대의 열점지역, 핵전쟁의 발화점으로 되였다.

미국의 가증되는 핵위협공갈에 대처하기 위해 우리는 자위적조치로서 이번에 우리 핵무력발전의 보다 높은 단계인 첫 수소탄시험을 성공적으로 단행하였다.

미국이 조선반도에서 전쟁위험을 제거하고 평화적환경을 마련할데 대한 우리의 공명정대한 요구를 한사코 외면하고 시대착오적인 대조선적대시정책에 계속 매달리는 한 우리의 핵개발중단이나 핵포기는 하늘이 무너져도 절대로 있을수 없다.

림 원

## 조선인민에 대한 극악한 범죄행위

### 스위스단체들 공동성명 발표

스위스조선위원회와 스위스주체사상연구소조가 남조선강점 미제침략군의 탄저균실험만행을 규탄하여 지난해 12월 27일 공동성명을 발표하였다.

성명은 미국이 남조선당국의 묵인비호밑에 남조선에 있는 저들의 군사기지에 탄저균과 페스트균을 반입하여 여러차례에 걸쳐 세균무기실험을 감행한데 대하여 까밝히고 이것은 미국이 탄저균실험이 처음이였다고 밝힌것이 새빨간 거짓말이라는것을 보여주었다고 지적하였다.

성명은 다음과 같이 계속하였다.

탄저균과 페스트균을 남조선에 반입하고 세균무기실험을 감행한것은 미국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반대하고 조선인민을 압살하기 위한 생화학전쟁을 준비하는데 목적을 두고있다.

미국은 지난 조선전쟁시기 조선인민을 반대하여 세균무기를 사용하였다.

오늘 미국은 남조선을 세계에서 가장 큰 핵무기고, 생화학무기실험장으로 만들어놓았다.

이것은 인류에 대한 극악한 범죄이며 대량살륙을 위한 준비의 일환으로 된다.

미국의 범죄행위를 묵인하고 지원하는 남조선당국은 가장 악독한 천하역적무리이다.

미국이 남조선에서의 탄저균과 페스트균실험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생화학무기위협에 대처하기 위한것》이라고 뻔뻔스럽게 우겨대고있는것은 조선인민에 대한 참을수 없는 우롱이다.

우리는 미국이 남조선에 탄저균과 페스트균을 반입한것을 조선인민에 대한 극악한 범죄행위로 강력히 규탄한다.

이것은 미제야말로 야만이며 인간도살자이라는것을 실증해주고있다.

미국은 남조선에서의 탄저균실험을 중지하라!

미국을 국제형사재판소에 끌어내라!

미군은 남조선에서 물러가라!

### 우 간 다 단 체
## 콩크리트장벽의 해체를 요구

범아프리카운동 우간다전국집행위원회가 군사분계선 남측지역에 구축된 콩크리트장벽의 해체를 요구하여 지난해 12월 29일 성명을 발표하였다.

성명은 미제의 사촉밑에 남조선당국이 콩크리트장벽을 구축한 때로부터 36년이 되였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범아프리카운동 우간다전국집행위원회는 조선반도를 둘로 갈라놓고있는 콩크리트장벽이 현재까지 해체되지 않고있는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시한다.

남조선당국은 콩크리트장벽이 나라의 통일을 위한 조선인민의 모든 노력을 방해하고있는 장애물임을 인정하여야 하며 즉시 이 장벽을 해체하여야 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미국사이에 평화협정이 체결되고 콩크리트장벽이 없어져야 한다. 조선반도의 평화통일을 전적으로 지지하고있는 우리는 콩크리트장벽과 같이 조선통일을 가로막는 물리적장애물이 하루속히 제거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 남조선에서의 반《정부》투쟁을

### 우루과이신문이 보도

우루과이신문 《라 후벤뚜드》 지난해 12월 21일부가 당국의 파쑈적폭압과 반인민적악정을 반대하는 남조선로동자들의 반《정부》투쟁을 사진과 함께 보도하였다.

신문은 남조선의 민주로총산하 26개 회사 로조원들을 비롯한 15만명의 로동자들이 지난해 12월 16일 12개 지역에서 일제히 총파업에 돌입한데 대하여 전하였다.

신문은 남조선당국자가 시위를 비법이라고 하면서 이에 강경대응하도록 한데 대하여 지적하고 이로써 박근혜는 독재자의 딸이라는 칭호를 받을만 하다는것을 다시금 보여주었다고 강조하였다.

【조선중앙통신】

ㄱ-610040(정기간행물번호 제13003호)(정기간행물발송특별취급승인 제3호) 전 화: 교환 373-2312, 편집국 373-1328, 론설원실 373-5428, 당력사교양부 373-5528, 당생활부 370-4528, 사회주의교양부 372-3528, 공업부 373-0263, 농업부 373-5628, 과학문화부 372-4628, 조국통일부 372-4882, 국제부 373-4728, 사진보도부 373-0712, 특파기자부 372-4328. 편 집 위 원 회